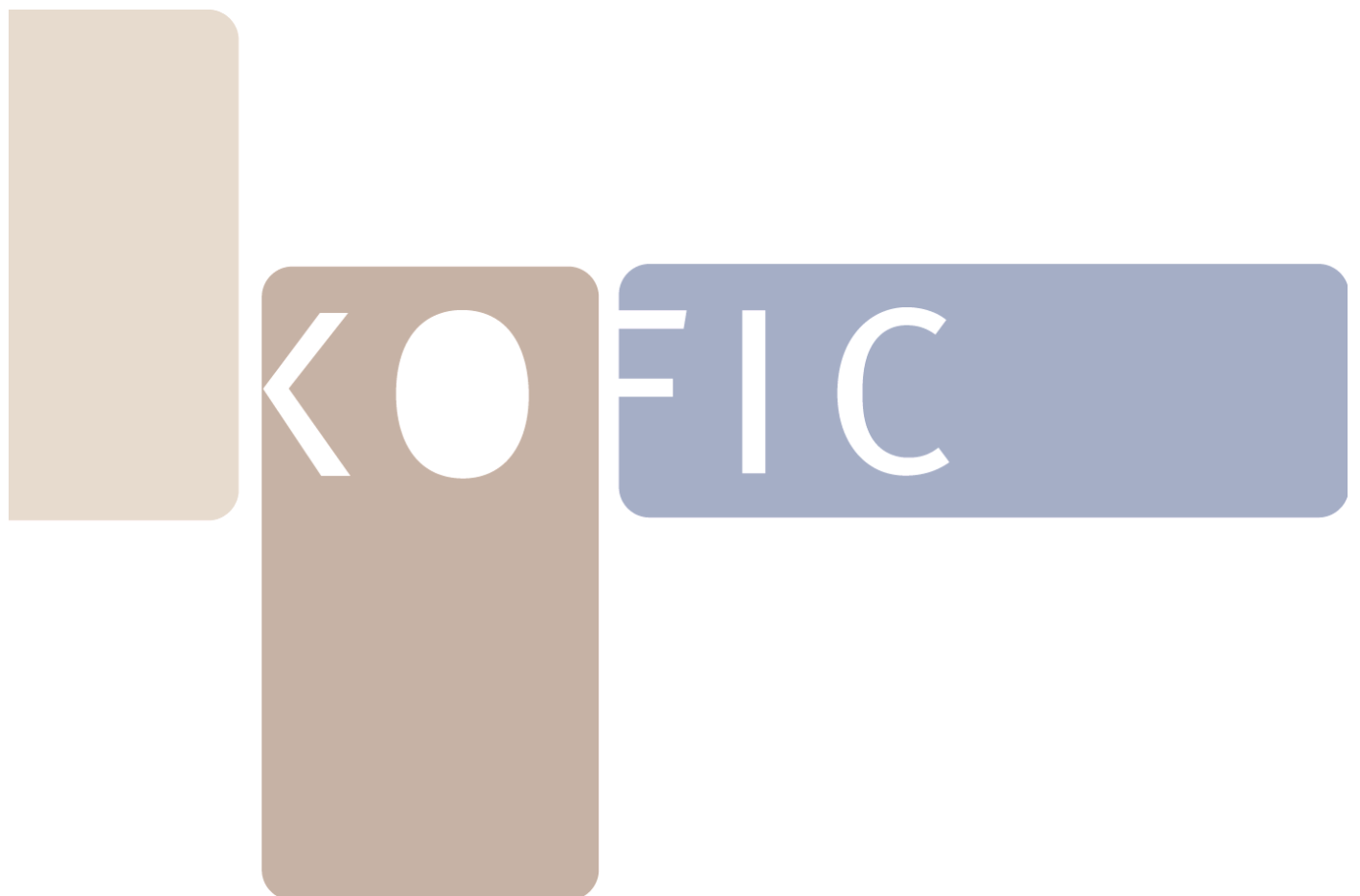




#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센터



<제목 차례>

I.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개관 .....	1
II. 본론 .....	8
1. 극장 관객 수와 매출 .....	8
2. 박스오피스 월별 점유율 .....	10
3. 박스오피스 국적별 점유율 .....	13
4. 박스오피스 배급사별 점유율 .....	15
5. 흥행영화 .....	19
6. 전국 극장 및 멀티플렉스 .....	25
7. 2012년 영화 디지털온라인 시장 현황 .....	30
8. 한국영화 제작비 및 투자 수익성 .....	38
9. 2012년 한국영화 수출 실적 분석 .....	44
III. 결론 .....	52
- 부록, 2012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	53

<표 차례>

표 1 연도별 한국 영화산업 주요 지표 .....	2
표 2 연도별 한국, 외국영화 제작, 수입 및 개봉편수 .....	2
표 3 2012년 월별 매출액 및 관객수, 점유율 .....	3
표 4 2012년 개봉영화 등급분류 편수 .....	4
표 5 한국영화 등급별 점유율 .....	5
표 6 외국영화 등급별 점유율 .....	6
표 7 최근 6년간 다양성영화 관객 수 .....	7
표 8 연도별 영화업체 수 .....	7
표 9 연도별 한국, 외국영화 박스오피스 주요 지표 .....	8
표 10 2012년 전국 지역별 극장 관객 수 및 매출 .....	9
표 11 연도별 평균 극장 요금 .....	10
표 12 2012년 월별 점유율 .....	12
표 13 2012년 국적별 점유율 .....	14
표 14 2012년 전체 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	16
표 15 2012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	17
표 16 2012년 외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	18
표 17 연도별 전체 영화 배급사별 관객 점유율 .....	19
표 18 2012년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권 .....	20
표 19 2012년 한국영화 흥행작 상위 10위권 .....	21
표 20 2012년 외국영화 흥행작 상위 10위권 .....	22
표 21 2012년 3D 영화 흥행작 상위 10위권 .....	23
표 22 최근 4년간 국내3D 영화 관객 및 극장 매출 현황 .....	24
표 23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	25
표 24 2012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	26

표 25 2012년 멀티플렉스 비중 .....	27
표 26 2012년 4대 멀티플렉스 .....	28
표 27 2012년 관객 동원 상위 10위권 극장 .....	29
표 28 전체 디지털미디어 시장 매출액 .....	30
표 29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유통 시장 규모 .....	31
표 30 2012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순위 .....	32
표 31 2012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한국영화 순위 .....	32
표 32 2012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외국영화 순위 .....	33
표 33 인터넷 VOD 영화 유통 시장 규모 .....	33
표 34 2012년 인터넷 VOD 영화 순위 .....	34
표 35 2012년 T스토어 영화 이용 순위 .....	34
표 36 2012년 인디플러그 배급 한국독립영화 이용 순위 .....	35
표 37 패키지 시장 규모 .....	35
표 38 2012 년 한국 영화 DVD 판매 순위 .....	36
표 39 2012 년 외국영화 DVD 판매 순위 .....	36
표 40 2012 년 한국 영화 블루레이DVD 판매 순위 .....	37
표 41 2012 년 외국 영화 블루레이DVD 판매 순위 .....	37
표 42 연도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 .....	38
표 43 연도별 총제작비 10억 미만 제외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 .....	39
표 44 연도별 총제작비 구간별 한국영화 개봉편수 분포 .....	40
표 45 2003~ 2012년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 .....	42
표 46 2012년 한국영화 개봉작 투자 수익률 .....	43
표 47 연도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 추이 .....	44
표 48 2011~2012 권역별 수출실적 .....	45
표 49 2011~2012년도 주요 10개국 한국영화 수출현황 .....	46
표 50 2011~2012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판권 유형 비교 .....	47
표 51 2010년~2012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 현황 비교 .....	48
표 52 2011, 2012년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태프 국가별 수주 현황 .....	49
표 53 2011, 2012년 외국 영상물 국가별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	50
표 54 2012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	53

#### <그림 차례>

그림 1 한국영화 2012년 개봉영화 등급별 작품수 .....	5
그림 2 외국영화 2012년 개봉영화 등급별 작품수 .....	5
그림 3 한국 개봉영화 등급별 매출액 점유율 .....	6
그림 4 외국 개봉영화 등급별 매출액 점유율 .....	6
그림 5 연도별 한국, 외국, 전체 영화 관객 수 .....	8
그림 6 2012년 월별 관객 수 (단위: 명) .....	13
그림 7 2012년 국적별 점유율 (상영작, 관객 기준) .....	15
그림 8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	25
그림 9 연도별 스크린 당 인구 수 (단위 : 명) .....	26

그림 10	연도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총제작비 구성 .....	39
그림 11	연도별 총제작비 구간별 한국영화 개봉편수 분포도 .....	40
그림 12	연도별 총제작비 구간별 한국영화 개봉편수 분포 비율 .....	41
그림 13	연도별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 추이 .....	42
그림 14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 편수 · 수출액 추이 .....	45
그림 15	2012년 한국 영화 완성작 수출 계약 세부 유형 분포 .....	47
그림 16	2010~2012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 현황 .....	49
그림 17	2012년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태프 국가별 수주 현황 .....	50
그림 18	2012년 외국 영상물 국가별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	51

##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 [총괄 책임] 정책연구부장 김보연(02-958-7511, soomam@kofic.or.kr)  
 [문의] (1~6) 상영시장 정책연구부 김수현(02-958-7514, march33@kofic.or.kr)  
           다양성 부문 정책연구부 황동미(02-958-7517, dmhwang@kofic.or.kr)  
           (7) 부가시장 국내진흥부 김현정(02-958-7557, claudiakim@kofic.or.kr)  
           (8) 한국영화 제작 및 수익성 정책연구부 윤 하 (02-958-7513, ducer@kofic.or.kr)  
           (9) 한국영화 수출 국제사업센터 김경만(02-958-7532, wave@kofic.or.kr)

##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 I.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개관<sup>1)</sup>

2012년 한국 영화산업은 관객수와 매출액, 수익성 면에서 한 단계 크게 도약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12년 전체 관객수는 무려 1억 9,4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나 상승했다. 이는 한국영화 역사상 최다 관객수라는 기록이기도 하다. 극장 매출은 1조 4,551억 원으로 17.7% 성장했다.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억 1,461만 명을 넘어섰으며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58.8%로 올라섰다. 한국영화 수익성 부문에 있어서도 역시 13%의 수익률을 내면서 2003년 이후 한국 영화산업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2년은 한국영화사상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2편(<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이나 등장한 해였으며,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피에타>를 배출한 역사적인 한 해가 되었다.

#### 극장 관객과 매출액의 가파른 증가

1조 4,551억 원을 기록한 2012년 입장권 흥행 수입은 2011년의 1조 2,362억 원에서 17.7%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2011년의 매출액 증가는 관객 증가에 의한 것이었으며, 2012년 역시 흥행영화에 따른 관객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더더욱 의미가 크다. 그만큼 많은 관객들이 다시 극장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더해 한국영화를 찾은 관객이 1억 명을 돌파하여 모두 1억 1,461만 명이 한국영화를 관람하였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IPTV 등 등장으로 관람 환경이 변화하고 총선과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1년 내내 한국의 관객들을 둘러싸고 있어서 2012년 극장 관객이 늘어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다양한 영화들을 관람하고자 하는 관객들의 호응과 극장 매출액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만큼 좋은 영화에 많은 관객이 몰린다는 평범한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한 해였던 셈이다.

한국영화는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 뿐만 아니라 <늑대소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연가시>, <건축학개론>, <내 아내의 모든 것> 등의 영화가 흥행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며 흥행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섰던 한국영화들 덕분에 한국영화가 시장 전체를 주도했으며 그에 따라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도 58.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2012년의 1인당 영화 관람횟수도 3.8회로 올랐으며, 2011년 3.1회로 회복세를 보이던 수치를 상당히 끌어올렸다. 이러한 상업영화 흥행의 흐름에 발맞추어, 스크린 수 역시 2011년 1,974개에서 2012년 2,081개로 다시 2천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로서 한국 영화산업 내수시장의 탄력적인 모습과 더불어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012년 수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http://www.kobis.or.kr))에 근거했다.

〈표 1〉 연도별 한국 영화산업 주요 지표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관객 수 (만 명)	4,704	4,698	5,055	4,869	4,711	4,883	4,629	4,786	5,654
	증감율 (%)	7.0	-0.1	7.6	-3.7	-3.2	2.3	-5.2	18.0
	한국영화 점유율(%)	54.2	54.9	60.4	45.0	39.6	46.0	43.9	42.8
전국 관객 수 (만 명)	13,517	14,552	15,341	15,877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증감율 (%)	13.1	7.7	5.4	3.5	-5.0	4.1	-5.8	21.9
	한국영화 점유율(%)	59.3	58.7	63.8	50.0	42.1	48.7	46.6	51.9
극장 매출액 (억 원)	8,498	8,981	9,257	9,918	9,794	10,941	11,684	12,358	14,551
극장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율(%)	18.5	5.7	3.1	7.2	-1.3	11.7	5.7	5.7	17.7
전국 스크린 수(개)	1,451	1,648	1,880	1,975	2,004	2,055	2,003	1,974	2,081
1인당 관람횟수(회)	2.78	2.98	3.13	3.22	3.03	3.15	2.92	3.15	3.83

2012년에 제작된 한국영화 편수(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작품 수 기준)가 229편인데 개봉을 한 작품은 겨우 175편(<늑대소년 확장판> 포함)에 불과하다. 2012년에는 콘서트를 녹화한 영상물까지 모두 극장 개봉작으로 포함시켰으며, 극장에서 1일 이상 상영된 예로물을 포함한 모든 영상물을 개봉작 범위 내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개봉작 편수가 다른 해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와 개봉편수 사이에 무려 50여 편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작품들이 개봉을 준비하지만 막상 개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외화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수입 후 심의를 완료한 작품은 773편인데 실제 개봉한 작품은 456편에 불과하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수입물의 편수가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1년 52주에 2,000개 내외의 스크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나, IPTV와 온라인 시장 등의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수입되는 외화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연도별 한국, 외국영화 제작, 수입 및 개봉편수 (단위 : 편)

구분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 개봉편수
	제작편수	개봉편수	수입편수	개봉편수	
2004	82	74	285	194	268
2005	87	83	253	215	298
2006	110	108	289	237	345
2007	124	112	404	280	392
2008	113	108	360	272	380
2009	138	118	311	243	361
2010	152	140	383	286	426

2011	216	150	551	289	439
2012	229	175	773	456	631

\* 제작편수 및 수입편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편수를 기준으로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단편영화(상영시간 40분 미만)는 제외함

\*\* 개봉편수는 전년도 이월작, 재개봉작을 제외한 최초 개봉작(First Run)만을 대상으로 함

<표 3> 2012년 월별 매출액 및 관객수, 점유

월	한국					외국					전체			
	개 봉 편 수	상 영 편 수	매출액	관객수	점 유 율	개 봉 편 수	상 영 편 수	매출액	관객수	점 유 율	개 봉 편 수	상 영 편 수	매출액	관객수
1	8	51	62,491,300,400	8,242,562	49.6	23	139	67,438,668,700	8,386,088	50.4	31	190	129,929,969,100	16,628,650
2	10	50	75,105,652,262	9,912,005	75.9	42	140	24,216,016,658	3,153,433	24.1	52	190	99,321,668,920	13,065,438
3	20	94	51,755,274,688	6,832,447	60.0	25	142	35,702,779,664	4,560,306	40.0	45	236	87,458,054,352	11,392,753
4	11	55	37,381,873,548	5,061,100	42.2	37	143	56,340,910,324	6,932,263	57.8	48	198	93,722,783,872	11,993,363
5	15	67	49,605,658,176	6,752,629	42.3	41	133	73,989,704,830	9,217,487	57.7	56	200	123,595,363,006	15,970,116
6	9	77	55,734,339,362	7,660,710	53.9	26	133	52,622,152,601	6,552,343	46.1	35	210	108,356,491,963	14,213,053
7	13	72	71,512,357,308	10,043,083	47.9	43	147	83,350,321,406	10,921,393	52.1	56	219	154,862,678,714	20,964,476
8	15	62	122,141,586,864	17,010,729	70.2	44	167	53,517,804,837	7,227,987	29.8	59	229	175,659,391,701	24,238,716
9	10	71	74,226,166,803	10,167,441	69.7	50	147	33,624,041,275	4,429,952	30.3	60	218	107,850,208,078	14,597,393
10	20	76	73,255,257,034	10,171,524	66.5	28	124	37,895,447,258	5,117,195	33.5	48	200	111,150,704,292	15,288,719
11	30	106	82,776,689,001	11,699,703	73.4	43	152	30,401,003,497	4,247,552	26.6	73	258	113,177,692,498	15,947,255
12	14	89	80,128,947,445	11,058,967	53.7	54	195	69,927,523,528	9,533,345	46.3	68	284	150,056,470,973	20,592,312
합계	175	870	836,115,102,891	114,612,900	58.8	456	1,762	619,026,374,578	80,279,344	41.2	631	2,632	1,455,141,477,469	194,892,244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1월 20일)

\* 이 표의 상영편수와 매출액은 유료시사, 영화제상영 등 기타 상영작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공식통계 매출액과 다를 수 있음.

## 한국영화 수익률 큰 폭 향상

2012년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174편 중 요건에 맞는 70편을 기준으로 산정한 투자수익률은 13.0%로 잠정 집계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한국영화 개봉작 제작비 간이조사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를 근거로 추정 한 가집계 결과이긴 하지만,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2005년도 투자수익률 7.9%보다 무려 5.1%가 높게 산출되었다. 한국영화 투자수익률 13.0%를 기록한 것은 영화산업 내에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 2007~2008년 -40%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을 거친 이후에도 2011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해 오던 영화산업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이다. 또한 해당 영화 수익성의 잣대가 되는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영화는 총 22편으로 전체 상업영화 70편 중 약 31.4%에 해당하였고, 이 중 투자 수익률 100%를 상회하는 작품은 12편으로 전체 의 약 17.1%에 해당하였다.

## 디지털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극장 이후 영화의 소비가 유·무선 통신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IPTV, VOD(Download 및 Streaming 등), Mobile Service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영화 부가판권시장은 디지털온라인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2년 영화 디지털온라인 시장 규모는 2,158억 원으로 2009년 888억 원을 기록한 이래 3년 연속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홈비디오와 같은 패키지 상품을 제외하면 3년 동안 각각 56.2%, 86.1%, 36.6%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4배 가까이 성장해 온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2012년 디지털온라인 시장의 이러한 비약적 성장은 단연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다. 패키지 시장은 하락 추세가 늦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호핀과 같은 일반유형OSP와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OSP를 통한 인터넷 VOD는 상대적으로 외연 확장이 더디다. 이러한 상황은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고 있는 웹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유형OSP에서 영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특수유형OSP에서의 합법 유통 매출이 예년에 비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영화 완성작 수출액 증가, 제작서비스 수출은 감소

한국영화에 있어 2012년은 국내에서 최고의 호황을 기록한 한 해였기도 했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했던 한 해였다. 우선 완성작의 해외 수출 총액은 전년대비 27.5% 상승한 20,174,950 달러(한화 약 221억원)으로 집계되어, 2008년 이후 4년 만에 2천만 달러선을 회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수출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한국영화 수출 관계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의 성과가 긍정적인 점은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좌우된 결과라기보다 현지 극장 배급 진출 등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이룩된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금액은 총 17,649,854 달러(한화 약 194억원)이며, 54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전체 수주금액으로만 본다면 2011년에 비해 7.3% 감소했다.

### 한국영화 15세이상관람가 영화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아

2012년 개봉한 영화들의 등급분류를 살펴보면, 편수 분포만 살펴보았을 때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많이 개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영화는 개봉작 175편(<늑대소년 확장판> 포함) 가운데 6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였으며, 외국영화의 경우 456편의 개봉작 중 무려 200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모두 15세이상관람가 영화가 각각 62편과 111편으로 많은 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등급별로 분류해 보면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한국영화는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의 영화가 올린 매출액이 60.6%에 달하여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전체 매출액의 19.7%를 차지하였다. 한국영화 중 전체관람가 영화의 매출액은 3.1% 밖에 안 되어서 한국영화가 전체 관객이 관람하는 영화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외국영화의 경우에는 12세이상관람가 영화가 전체 매출액 중 48.3%, 전체관람가 영화가 22.7%를 차지하면서 애니메이션 등 저연령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에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 전체가 영화를 보러 갈 때 관람 가능한 영화가 외국영화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한국 영화시장의 미래 관객들이 어려서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가 자국영화가 아닌 외국영화라는 점에서, 한국영화의 미래 관객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한 부분으로 분석된다.

<표 4> 2012년 개봉영화 등급분류 편수 (단위 : 편, %)



등급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전체 관람가	40	135	175
12세 관람가	32	82	114
15세 관람가	74	180	254
청소년관람불가	77	372	449
제한 상영가	6	4	0
등급분류 합계	229	773	992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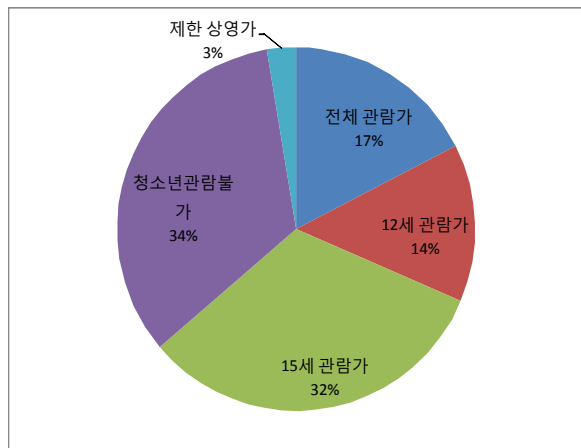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영화 2012년 개봉영화 등급별 작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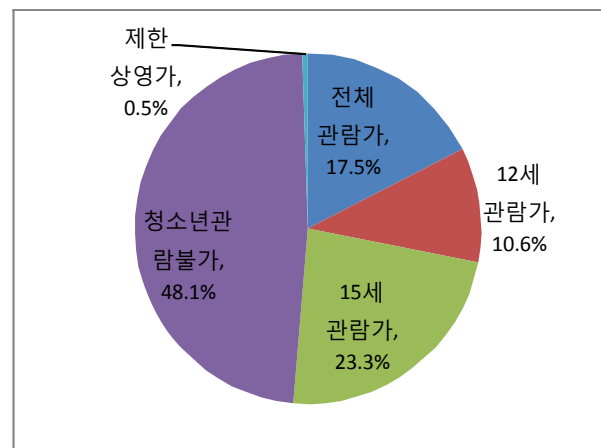


그림 2 외국영화 2012년 개봉영화 등급별 작품수

<표 5> 한국영화 등급별 점유율

순위	등급	개봉편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관객 점유율
1	15세이상관람가	62	506,096,520,622	60.6%	70,028,087	61.3%
2	청소년관람불가	63	164,192,810,884	19.7%	21,881,497	19.2%
3	12세이상관람가	27	139,328,109,665	16.7%	19,318,801	16.9%
4	전체관람가	23	26,022,148,000	3.1%	3,015,154	2.6%
합계		175	835,639,589,171	100%	114,243,539	100%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표 6> 외국영화 등급별 점유율

순위	등급	개봉편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관객 점유율
1	12세이상관람가	58	377,326,261,377	48.3%	46,335,534	46.6%
2	전체관람가	87	177,241,703,115	22.7%	23,279,054	23.4%
3	15세이상관람가	111	157,145,242,666	20.1%	21,275,258	21.4%
4	청소년관람불가	200	68,780,775,105	8.8%	8,610,310	8.7%
합계		456	780,493,982,263	100%	99,500,156	100%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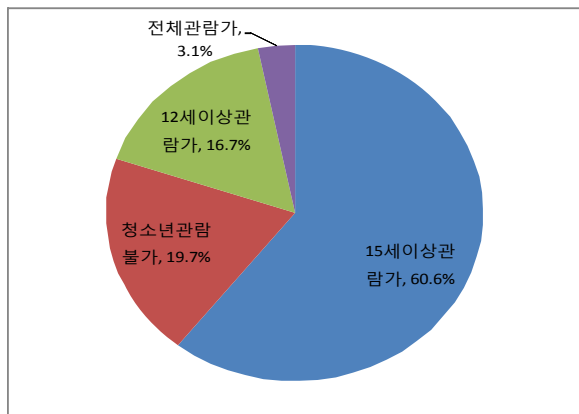


그림 3 한국 개봉영화 등급별 매출액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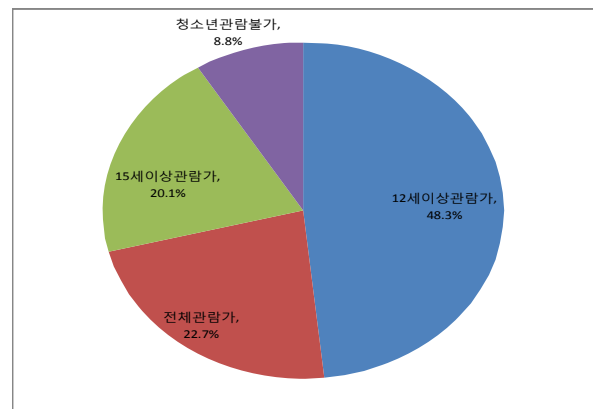


그림 4 외국 개봉영화 등급별 매출액 점유율

시장의 성장이 다양성 영화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성영화 관객 수는 2009년의 <위낭 소리>와 2011년의 <마당을 나온 암탉>과 같은 한 두 편의 흥행작으로 인하여 그 수치가 들쭉날쭉하다. 2012년 관객 수가 3,444,810명으로 2011년에 비해 관객이 거의 47.3% 정도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에 <마당을 나온 암탉> 한 편이 200만 관객을 모았고 그 수치가 전체 다양성영화 관객 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줄어든 숫자는 쉽게 수궁이 되면서도 아쉬운 면이 있다.

2012년 다양성 영화와 관련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작품은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였다. <피에타>는 베니스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수상뿐만 아니라, 작은 영화의 극장 배급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한

국영화산업의 이슈를 만들어 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은 자진 종영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거대 상업 영화에 함몰되어가는 한국 영화산업과 문화, 관객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쉽게도 다양성 영화에서는 <피에타> 외에 크게 화제가 된 작품들은 많지 않았다.

외국영화의 경우 우디 알렌의 <미드나잇 인 파리>, 일본 애니메이션 <늑대 아이>, 흑백영화 <아티스트> 등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몇몇 예술영화관을 중심으로 외국 예술영화 관객 소비층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독립영화 중에서는 <두 개의 문>, <말하는 건축가>, <달팽이의 별>과 같은 다큐멘터리들이 SNS를 통한 입소문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표 7> 최근 6년간 다양성영화 관객 수

연도	예술영화인정편수(편)	서울 관객 수(명)	전국 관객 수(명)	비고
2007	97	1,676,374	4,364,749	
2008	140	1,781,625	4,055,168	
2009	153	2,864,812	7,048,885	<워낭소리> (전국 299만 명) 포함
2010	192	1,301,800	2,807,018	
2011	230	2,492,001	6,542,930	<마당을 나온 암탉> (전국 220만 명) 포함
2012	365	1,915,645	3,444,810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영화업체의 꾸준한 증가

2012년 영화업체 수는 5,099개로 2011년보다 152개 늘어났다. 제작업이 87개 늘어나고 다른 부문도 약간씩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다. 다만 현 기준으로 폐업 신고의 경우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8> 연도별 영화업체 수 (단위 : 개)

구분	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합계
2002	1,081	428	290	557	2,356
2003	1,218	469	302	611	2,600
2004	1,375	509	315	654	2,853
2005	1,965	785	405	893	4,048
2006	2,154	820	435	983	4,392
2007	1,967	629	425	773	3,794
2008	2,747	984	607	983	5,321
2009	2,365	741	559	715	4,380
2010	2,465	755	575	817	4,612
2011	2,664	813	641	829	4,947
2012	2,751	835	671	842	5,099

## II. 본론

### 1. 극장 관객 수와 매출

2012년 전체 극장 관객 수는 1억 9,489만 2,2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의 1억 5,972만 명에 비해 22%나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영화 관객 수는 1억 1,461만 2,900명으로 전년 대비 3,174만 명가량 증가하여 38.3%의 상승률을 보여 주었고, 외화 관객도 2011년 7,686만 명에서 2012년 8,027만 명으로 341만 명이 늘어나, 4.43%의 상승폭을 보였다. 전국 주민등록인구수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5,094만 명을 넘었고, 국민 1인당 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횟수는 3.83회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영화의 1인당 관람횟수는 높지 않았지만 1인당 한국영화 관람횟수가 2.25회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영화의 흥행이 전체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9〉 연도별 한국, 외국영화 박스오피스 주요 지표

구분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 관객 수 (만 명)	1인당 관람횟수 (회)
	관객 수 (만 명)	점유율	1인당 관람횟수 (회)	관객 수 (만 명)	점유율	1인당 관람횟수 (회)		
2003	6,391	53.49%	1.32	5,556	46.51%	1.15	11,947	2.47
2004	8,019	59.33%	1.65	5,498	40.67%	1.13	13,517	2.78
2005	8,544	58.71%	1.75	6,008	41.29%	1.23	14,552	2.98
2006	9,791	63.80%	2.00	5,549	36.20%	1.13	15,341	3.13
2007	7,939	50.00%	1.61	7,938	50.00%	1.61	15,877	3.22
2008	6,354	42.13%	1.28	8,729	57.87%	1.76	15,083	3.04
2009	7,641	48.68%	1.54	8,055	51.32%	1.62	15,696	3.15
2010	6,940	46.52%	1.37	7,978	53.48%	1.58	14,918	2.92
2011	8,287	51.86%	1.63	7,686	48.14%	1.52	15,972	3.15
2012	11,461	58.80%	2.25	8,027	41.20%	1.58	19,489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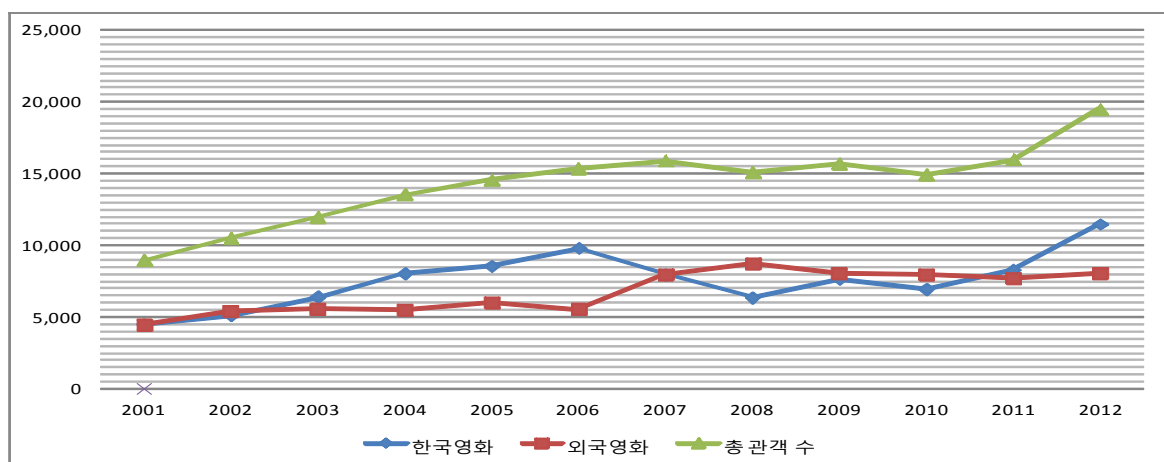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한국, 외국, 전체 영화 관객 수

한편 전국 16개 광역단체별 연간 극장 관객 수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관객 수가 5,654만 명으로 전체 점유율의 29%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그리고 경기 지역 관객 수가 4,232만 명으로 21.7%의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다. 2012년 서울 지역의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는 2011년 4.67회에서 2012년에는 5.55회로 상당히 높아졌다. 뒤이어 광주 지역이 5.19회를 기록해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단체가 이어 멀티플렉스가 밀집한 대도시에서의 영화 관람이 보다 활발함을 보여 주고 있다. 전남 지역의 평균 관람횟수는 1.72회로 지난해의 1.35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유일한 1명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표 10〉 2012년 전국 지역별 극장 관객 수 및 매출

지역	관객 수(명)	관객 점유율	극장 매출(원)	극장 매출 점유율	인구 수(명)	1인당 관람횟수(회)
서울시	56,544,859	29.0%	444,317,846,118	30.53%	10,195,318	5.55
경기도	42,320,166	21.7%	316,545,945,403	21.75%	12,093,299	3.50
부산시	16,403,412	8.4%	117,094,318,515	8.05%	3,538,484	4.64
대구시	11,702,961	6.0%	84,370,182,500	5.80%	2,505,644	4.67
인천시	9,487,842	4.9%	72,441,521,500	4.98%	2,843,981	3.34
경상남도	9,359,392	4.8%	67,703,662,000	4.65%	3,319,314	2.82
광주시	7,630,850	3.9%	55,734,002,500	3.83%	1,469,216	5.19
대전시	7,531,706	3.9%	55,117,143,856	3.79%	1,524,583	4.94
경상북도	5,689,343	2.9%	40,336,247,000	2.77%	2,698,353	2.11
전라북도	5,480,258	2.8%	39,444,164,500	2.71%	1,873,341	2.93
충청남도	5,436,250	2.8%	39,038,251,500	2.68%	2,028,777	2.68
충청북도	4,663,915	2.4%	32,732,253,000	2.25%	1,565,628	2.98
강원도	4,126,291	2.1%	30,034,117,077	2.06%	1,538,630	2.68
울산시	3,562,105	1.8%	25,143,469,500	1.73%	1,147,256	3.10
전라남도	3,288,902	1.7%	23,069,183,000	1.59%	1,909,618	1.72
제주도	1,663,992	0.9%	12,019,169,500	0.83%	583,713	2.85
합계	194,892,244	100%	1,455,141,477,469	100%	50,948,272	3.83

\* 인구 수는 2012년 12월 31일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외국인은 제외)

\*\* 지역별 관객 수의 합은 통합전산망 기준.

관객 수는 전체적으로 22%라는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지만 입장권 흥행 수입은 17.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객 수보다 입장권 수입의 비율이 적게 늘어난 것은 3D 영화와 같은 가격이 높은 영화의 상영이

줄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2009년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섰던 극장 박스오피스 매출은 2010년 1조 1,514억 원, 2011년 1조 2,362억 원에 이어 2012년에는 1조 4,551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평균 관람료는 오히려 2011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2009년 6,970원이었던 평균 관람료는 2010년 7,834원으로 12.4% 올랐었는데 2010년의 평균 관람료 상승의 주요 원인은 <아바타>와 같은 3D영화 개봉편수와 3D 상영 회수가 증가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2011년 평균 관람료는 7,737원으로 2010년 대비 1.2% 하락했으며 이어서 2012년에도 7,466원으로 낮아졌다. 관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관람료는 전년 대비 3.5% 하락한 수치를 보여 주었다.

<표 11> 연도별 평균 극장 요금

구분	관객 수(만 명)	매출(억 원)	평균 관람료(원)
2003	11,948	7,171	6,002
2004	13,517	8,498	6,287
2005	14,552	8,981	6,172
2006	15,341	9,256	6,034
2007	15,877	9,918	6,247
2008	15,083	9,794	6,494
2009	15,696	10,940	6,970
2010	14,681	11,514	7,834
2011	15,972	12,362	7,737
2012	19,489	14,551	7,466

## 2. 박스오피스 월별 점유율

2012년 극장가 흥행은 한국영화가 전체적으로 주도하여 시장을 형성한 모습을 보여 준다. 월별 흥행 흐름을 보면 4월~6월은 외국영화가 시장에서 약간 앞선 모습을 보여 주었고 나머지 달에는 한국영화가 시장을 주도했다. 프랜차이즈 영화 중심으로 형성된 할리우드영화의 라인업은 다양한 장르와 내러티브를 앞세운 한국영화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또한 설, 여름, 추석 등의 극성수기를 한국영화가 완전히 선점하였고, 비수기 역시 다양한 한국영화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영화가 우위를 점한 한 해가 되었다.

2012년 초에는 2011년 개봉작이었던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과 2012년 1월 개봉작인 <댄싱퀸> <부러진 화살>이 1월 흥행세를 이어갔다.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은 1월에도 249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한국영화 <댄싱퀸>과 <부러진 화살>은 1월 한 달 동안 각각 230만 명과 208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외국영화의 경우, <장화신은 고양이>,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신비의 섬>이 각각 190만과 100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1월의 한국영화 점유율은 49.6%, 외국영화 점유율은 50.4%로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월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부터 <댄싱퀸>, <하울링>, <부러진 화살>까지 한국영화가 1,2,3,4 위 모두를 싹쓸이했다. 여기에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3D>까지 가세하여 한국영화는 모두 980만 관객을 모았다. 외국영화의 경우 <토르: 마법망치의 전설> 등의 가족 관객을 겨냥한 영화를 중심으로 311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2월부터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라 75.9%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였다.

3월은 2012년 중 총관객 수가 가장 낮은 달이었다. 관객 수가 1,139만 명에 불과해 2월의 1,306만 명에 비해서 12.7% 정도 하락하였다. 극장 관객이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한국영화가 개봉하면서 3월의 극장가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화차>, <러브픽션>, <건축학개론>, <가비> 등이 개봉하였고, 이 중에서 <건축학개론>은 4월까지 흥행을 지속하였다. 전체 관객 수는 적었지만 이렇듯 다양한 한국영화들이 개봉하면서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었고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60.0%에 이르렀다. 외국영화의 경우 블록버스터인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이 개봉했지만 기대만큼 흥행 성적이 좋지 못했고, 오히려 프랑스영화인 <언터처블: 1%의 우정>이 월별 순위 5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보여 주었다.

4월은 관객 수가 3월보다 약간 늘어난 모습을 보여 주었다. 4월 전체 관객 수는 1,199만 명으로 지난 해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이는 <건축학개론>의 지속적인 흥행 성공과 더불어 <어벤저스>의 개봉으로 인한 관객 수 증가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영화로는 <간기남>, <시체가 돌아왔다>, <은교> 등이 개봉하였고, 외국영화는 <배틀쉽>,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 <타이탄의 분노> 등이 개봉했다. <어벤저스>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영화들은 눈에 띄는 흥행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어벤저스>의 위력에 힘입어 외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5월은 외국영화의 흥행으로 극장이 다시 활개를 쳤다. <어벤저스>와 <맨 인 블랙 3>가 흥행을 이어가면서 외국영화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영화 역시 <내 아내의 모든 것> <코리아> <돈의 맛>이 개봉하면서 42.3%의 관객 점유율을 나타냈다. 5월 총관객 수는 1,597만 명에 이르렀다. 6월에는 5월에 비해 총관객 수가 약간 낮아져 1,421만 명 정도였다. 한국영화 중에는 <후궁: 제왕의 첩>과 <내 아내의 모든 것>이 흥행을 지속하였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6월 말 개봉하여 7월 흥행을 예고했다. 한편, <어벤저스>가 물러난 자리를 <맨 인 블랙 3>가 완전히 메우지 못하면서 외국영화 점유율이 46.1%로 떨어졌고, 한국영화 점유율은 53.9%로 상승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은 극장가는 7월 2,096만여 명, 8월 2,426만여 명을 불러들이며 연중 최고 관객 기록을 계속 고쳐 써 갔다. 7월에는 미국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흥행을 지속했고, 한국영화 <연가시>가 400만이 넘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도둑들>은 8월 흥행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모두 1,29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400만 이상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연중 최고 성수기인 여름시장에서 한국영화는 7월 47.9%, 8월 70.2%, 9월 69.7%라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다.

9월과 10월은 7~8월 여름 시즌에 비해 전체 관객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추석 시즌을 겨냥하여 개봉한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공모자들>이 예상외의 흥행을 이끌었다. 또한 <피에타>의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밖에도 <간첩> <이웃사람> 등이 개봉해 관객들은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었다. 반면 외화는 <본 레저시>와 <테이큰 2> 정도

가 눈에 띄었을 뿐이다. 이처럼 9월과 10월에도 한국영화는 각각 69.7%와 66.5%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어갔다. 10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흥행은 계속되었고, <용의자X>, <회사원>, <점쟁이들> 등의 한국영화가 개봉하였다. 외국영화의 경우 <007 스카이폴>이 개봉했지만 기대만큼의 흥행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반면 전통적인 비수기로 분류되던 11월은 올해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생 관객들이 극장 흥행을 주도하였다. 11월 총관객은 1,594만 명 정도였으며, <늑대소년>의 흥행 성공으로 한국영화 관객 수는 1,169만 명, 점유율 73.4%의 기록을 세웠다. 이밖에 <돈 크라이 마미>, <26년> <남영동1985>과 같은 영화들은 대선 정국의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내가 살인범이다>, <돈 크라이 마미>, <26년>, <남영동1985>, <음치클리닉>, <철가방 우수氏> 등의 한국영화들이 흥행 순위 10위권 내에 모두 들면서 11월 전체 개봉작 흥행 순위 10위권을 한국영화가 모두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크리스마스과 방학이 겹친 12월에는大作들이 시장을 먼저 차지했다. 외국영화인 <레미제라블> <호빗: 뜻밖의 여정>과 한국형 블록버스터 <타워>가 개봉하면서 흥행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은 뮤지컬 원작 영화인 <레미제라블>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영화 <26년>이 2위의 성적을 보였다. 한편 <호빗: 뜻밖의 여정>이 기대만큼의 흥행을 이끌지 못하면서 한국영화의 강세는 12월에도 지속되었다. <타워>와 <나의 PS 파트너> <반창꼬> <가문의 영광 5- 가문의 귀환> 등이 개봉하면서 12월 최종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3.7%의 성적을 기록했다.

<표 12> 2012년 월별 점유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한국영화관객	8,242,562	9,912,005	6,832,447	5,061,100	6,752,629	7,660,710	10,043,083	17,010,729	10,167,441	10,171,524	11,699,703	11,058,967	114,612,900
월별 점유율	49.6%	75.9%	60.0%	42.2%	42.3%	53.9%	47.9%	70.2%	69.7%	66.5%	73.4%	53.7%	58.8%
분기별 점유율	61.8			46.1			62.6			64.5			
반기별 점유율	53.4						62.8						
외국영화관객	8,386,088	3,153,433	4,560,306	6,932,263	9,217,487	6,552,343	10,921,393	7,227,987	4,429,952	5,117,195	4,247,552	9,533,345	80,279,344
월별 점유율	50.4%	24.1%	40.0%	57.8%	57.7%	46.1%	52.1%	29.8%	30.3%	33.5%	26.6%	46.3%	41.2%
분기별 점유율	38.2			53.8			37.4			35.5			
반기별 점유율	46.6						37.2						
전체	16,628,650	13,065,438	11,392,753	11,993,363	15,970,116	14,213,053	20,964,476	24,238,716	14,597,393	15,288,719	15,947,255	20,592,312	194,892,244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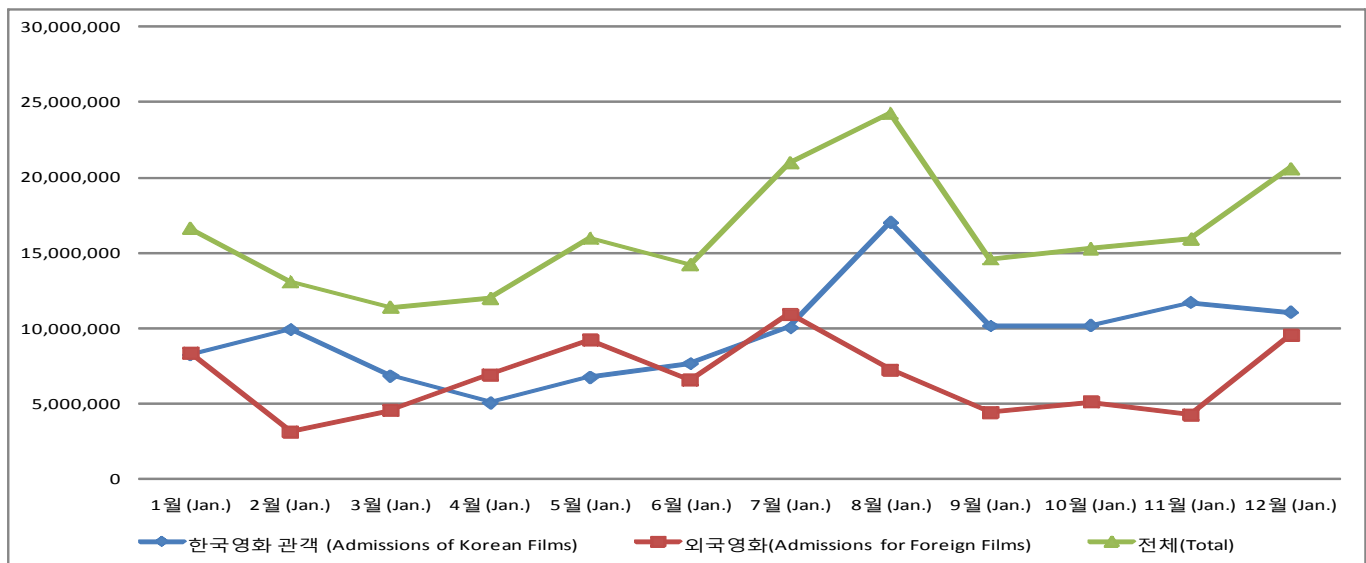


그림 6 2012년 월별 관객 수 (단위: 명)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3. 박스오피스 국적별 점유율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2년 한국영화는 개봉작의 관객점유율이 59.0%, 상영작의 관객점유율 59.2%로 지난 몇 년간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 주었다.<sup>2)</sup> 더불어 1천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영화가 2편이나 나오면서 시장을 한국영화가 주도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영화는 개봉작 34.1%의 관객 점유율로 2011년의 43.2%보다 낮아졌다. 한국영화 흥행이 미국영화 흥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직배영화 개봉작의 관객 점유율은 2011년 23.3%에서 2012년 27.0%로 소폭 상승하였다. 외화 중에 흥행 상위 3위를 차지한 <어벤져스> <다크 나이트 라이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모두 직배사 영화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유럽영화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유럽영화는 벨기에 영화인 <새미의 어드벤처 2>와 프랑스영화인 <언터처블: 1%의 우정> <테이큰 2>가 흥행에 성공하였고, 다양한 예술영화의 수입과 더불어 2012년 4.9%라는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그에 비해 일본영화는 1.4%의 점유율만을 보이면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중국영화는 2011년과 비슷한 시장 점유율인 0.3%를 기록했다. 아울러 기타 국적 영화의 시장 점유율도 0.4%를 보이면서 2011년의 0.7%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

국적별 점유율을 보면 여전히 관객들은 큰 영화, 흥행작, 화제작에 몰리고 그에 따라 한국영화와 할리우드영화에 관객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영화를 진흥하기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적별 구분에 포함되는 영화는 개봉영화뿐만 아니라 기타상영작(영화제 영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값이므로 한국영화 점유율 통계와 다를 수 있다.

<표 13> 2012년 국적별 점유율

국적		2011년 1~12월						2012년 1~12월					
		구분	편수	전국 관객 수	전국 관객 점유율	전국 매출액	전국 매출액 점유율	구분	편수	전국 관객	전국 관객 점유율	전국 매출액	전국 매출액 점유율
한국		상영작	166	82,680,959	52.0%	612,604,761,000	49.8%	상영작	203	114,460,777	59.2%	835,597,945,948	57.9%
		개봉작	150	77,942,348	51.1%	577,708,052,800	48.9%	개봉작	175	101,283,666	59.0%	741,668,846,796	57.6%
미국	USA 직배	상영작	54	36,527,147	23.0%	287,372,132,900	23.4%	상영작	52	48,794,687	25.2%	384,435,609,809	26.6%
		개봉작	50	35,615,189	23.3%	279,191,100,000	23.6%	개봉작	45	46,355,988	27.0%	366,494,699,741	28.5%
	USA	상영작	96	32,171,017	20.3%	273,803,126,000	22.3%	상영작	133	17,114,005	8.9%	129,726,401,398	9.0%
		개봉작	90	32,053,852	21.0%	272,891,625,500	23.1%	개봉작	119	12,112,826	7.1%	92,429,726,777	7.2%
	소계	상영작	150	68,698,164	43.2%	561,175,258,900	45.6%	상영작	185	65,908,692	34.1%	514,162,011,207	35.6%
		개봉작	140	67,669,041	44.3%	552,082,725,500	46.7%	개봉작	164	58,468,814	34.1%	458,924,426,518	35.7%
중국		상영작	17	480,994	0.3%	3,894,379,900	0.3%	상영작	30	635,066	0.3%	4,521,885,900	0.3%
		개봉작	15	480,850	0.3%	3,893,356,900	0.3%	개봉작	30	627,538	0.3%	4,468,351,900	0.3%
유럽		상영작	66	3,031,404	1.9%	24,459,688,500	2.0%	상영작	129	8,375,652	4.3%	62,933,307,762	4.3%
		개봉작	55	2,673,856	1.8%	21,154,354,800	1.8%	개봉작	116	8,201,355	4.9%	60,995,714,462	4.7%
일본		상영작	50	2,889,991	1.8%	19,818,034,200	1.6%	상영작	128	3,063,284	1.6%	20,050,332,493	1.4%
		개봉작	45	2,742,471	1.8%	18,780,451,200	1.6%	개봉작	120	2,442,213	1.4%	15,643,372,093	1.2%
기타		상영작	37	1,076,095	0.7%	7,921,778,200	0.6%	상영작	29	860,784	0.5%	6,305,900,887	0.4%
		개봉작	34	1,073,127	0.7%	7,898,759,200	0.7%	개봉작	26	667,608	0.4%	4,940,823,442	0.4%
총		상영작	486	158,857,607	100.0%	1,229,873,900,700	100.0%	상영작	704	193,304,255	100%	1,443,571,384,197	100%
		개봉작	439	152,581,693	100.0%	1,181,517,700,400	100.0%	개봉작	631	171,691,194	100%	1,286,641,535,211	100%

\* 입장권 통합전산망기준.

\*\* 외국영화의 국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신청 시 기재된 '제작국'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으며, 기존 분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국은 홍콩 및 대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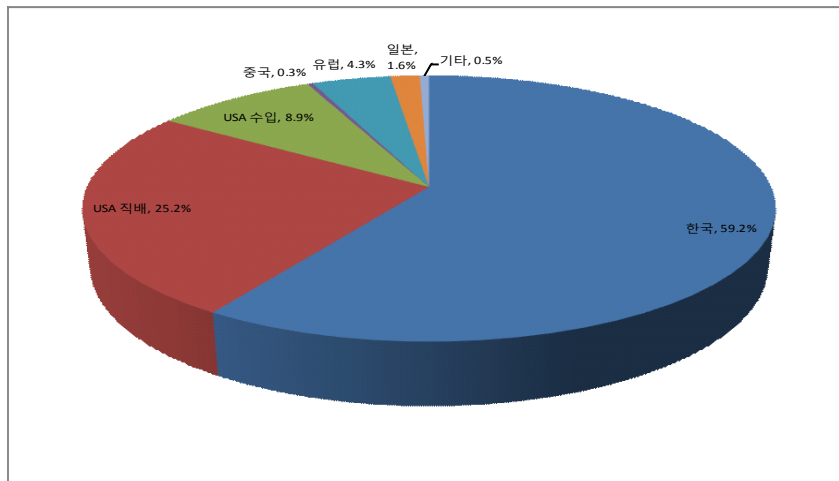


그림 7 2012년 국적별 점유율 (상영작, 관객 기준)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4. 박스오피스 배급사별 점유율

CJ E&M 영화사업부문은 2012년에도 배급 순위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이후 10년째 배급사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모두 43편을 배급한 CJ E&M은 총 52,463,660명의 관객을 동원해 27.2%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2011년의 36.4% 점유율보다는 9.2%가 낮아진 수치이지만 1위 자리를 지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CJ E&M은 1,231만 관객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더불어 706만 관객이 든 <늑대소년>(확장판 포함), 451만 관객을 모은 <연가시>까지 전체 흥행영화 상위 10편 중 3편의 작품을 배급하였다.

더불어 CJ E&M은 <타워> <알투비: 리턴투베이스>와 같은 한국형 블록버스터, <나의 PS 파트너> <댄싱퀸> <용의자X>와 같은 중급 규모 예산의 상업영화는 물론, <장화신은 고양이> <마다가스카3: 이번엔 서커스다!>와 같은 할리우드영화, <새미의 어드벤처 2>와 같은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의 영화들을 배급하였다. 한편, CJ 계열의 필라멘트픽처스는 <화차> <577 프로젝트> 등의 저예산영화를 별도로 배급했다. 필라멘트픽처스는 전체 배급 순위 9위에 올랐다.

2위는 쇼박스㈜미디어플렉스이다. 쇼박스는 1,298만 관객을 동원한 <도둑들>을 통해 배급 순위 2위로 부상했다. 또한 <도둑들>과 함께 <내가 살인범이다> <회사원> <미확인 동영상: 절대클릭금지> 등의 작품을 배급하였다. 총 배급 작품 수는 11편이다. 한편, 배급 순위 3위의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배급편수로는 가장 많은 44편을 배급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좋지 못했다. 롯데가 동원한 관객은 모두 23,876,447명으로, 관객 점유율 12.4%를 기록했다. 4위는 NEW가 차지했으며 모두 16.5편(공동배급 포함)을 배급했다. 3위와 4위의 차이가 관객 수 50만 명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NEW의 시장 점유율은 12.1%이며, <내 아내의 모든 것>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점쟁이들> <피에타> <러브픽션> 등을 배급해 모두 23,304,062명의 관객을 모았다. 한편 5위는 점유율 12.0%를 보인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에 돌아갔다.

소니는 <어벤져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맨 인 블랙 3> <007 스카이폴> 등을 직접 배급하였다. 관객 수가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니가 13.1%의 매출 점유율을 보이면서 전체 배급사 중 2위가 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3D 영화의 관람료로 인한 매출액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배급사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던 워너브러더스코리아는 2012년에는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 <호빗: 뜻밖의 여정> 등을 배급하면서 직배사의 굳건한 순위를 지켰다. 한편 유니버설픽처스 인터내셔널코리아와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각각 배급 순위 7위와 8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위권 내에 들었던 화엔담이엔티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 SBS콘텐츠헤브가 새롭게 진입했다.

<표 14> 2012년 전체 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순 위	배급사	편수 (편)	전국 매출액 (원)	전국 매출 점유율	전국 관객 수 (명)	전국 관객 점유율
1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43	384,778,607,646	26.7%	52,463,660	27.2%
2	쇼박스㈜미디어플렉스	11	182,170,563,000	12.6%	24,739,264	12.8%
3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44	173,331,046,743	12.0%	23,876,447	12.4%
4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6.5	169,980,254,957	11.8%	23,304,062	12.1%
5	소니픽처스릴리징월드디즈니 스튜디오스코리아(주)	18	188,252,468,283	13.1%	23,180,435	12.0%
6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10	101,575,204,562	7.0%	13,023,205	6.7%
7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15	59,699,977,361	4.1%	8,039,929	4.2%
8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13	55,385,762,656	3.8%	7,153,738	3.7%
9	필라멘트픽처스	5	20,783,114,500	1.4%	2,748,629	1.4%
10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헤브	8.5	15,028,153,849	1.0%	2,111,842.5	1.1%
	기타	519	92,272,096,643	6.0%	12,620,119	6.3%
	총계	703	1,443,257,250,200	100%	193,261,331	100%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순위는 관객 수(점유율)로 집계.

\*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의 회사명이 변경되어 소니픽처스릴리징월드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로 통일함.

한국영화 배급에서도 CJ E&M 영화사업부문은 1위의 자리를 지켰다. CJ E&M 은 27편의 한국영화로 42,144,005명의 관객을 동원해 36.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관객 동원 1위 작품은 내지 못했지만 <광해, 왕이 된 남자> <늑대소년>으로 한국영화 흥행 2,3위를, <연가시>로 7위, <덴싱퀸>으로 9위를 차지한 덕택이다.

쇼박스㈜미디어플렉스는 <도둑들>의 흥행 성공으로 지난해 3위에서 2012년에는 2위로 뛰어올랐다. 쇼박스는 모두 8편의 한국영화를 배급해 21.5%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에서는 전체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전체 배급사별 순위 4위였던 NEW는 한국영화 배급 순위 3위에 올랐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내 아내의 모든 것> <부러진 화살>이 각각 한국영화 흥행순위 4위, 6위, 10위에 올랐고, <피에타>로 예술영화 배급에서도 성공적이었다. 반면 2011년 26.3%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2위에 올랐던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모두 22.5편의 한국영화를 배급했음에도 15.8%의 관객 점유율로 4위에 머물러야만 했다. 롯데는 한국영화 순위 10위권 내에 <건축학개론> 1편만을 올리는 데 그쳤다.

5위에 오른 필라멘트픽처스는 <577 프로젝트>와 <화차>의 흥행 성공을 이끌었다. 한편 영화사청어람은 영화 <26년>을 공동배급해 한국영화 배급사별 순위 7위에 올랐다. 또한 SBS콘텐츠허브, 씨너스엔터테인먼트, 타임스토리그룹이 8, 9, 10위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지만, 각각 0.9%의 점유율이라는 낮은 성적을 보였을 뿐이다. 주요 배급사로의 시장 쏠림 현상은 2012년 들어 평년보다는 조금쯤 완화된 듯 보이지만 상위 5개사의 쏠림 현상은 2012년에도 여전했다. 2011년에는 상위 5개 배급사를 제외한 기타 배급사의 시장 점유율이 3.7%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6.9% 정도를 나타냈다.

<표 15> 2012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	배급사	편수 (편)	전국 매출액 (원)	전국 매출 점유율	전국 관객 수 (명)	전국 관객 점유율
1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7	306,314,655,166	36.7%	42,144,005	36.8%
2	쇼박스㈜미디어플렉스	8	181,442,512,000	21.7%	24,639,169	21.5%
3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1	137,825,483,992	16.5%	18,859,329	16.5%
4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2.5	131,460,624,120	15.7%	18,115,154.5	15.8%
5	필라멘트픽처스	3	19,155,620,500	2.3%	2,532,566	2.2%
6	(주)인벤트스톤	1.5	10,717,928,130	1.3%	1,493,141	1.3%
7	영화사청어람(주)	0.5	10,555,969,073	1.3%	1,470,241	1.3%
8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3	6,988,457,099	0.8%	991,460	0.9%
9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1	7,299,721,051	0.9%	989,369.5	0.9%
10	타임스토리그룹(주)	2	6,554,631,550	0.8%	883,827	0.8%
	기타	122.5	17,129,169,770	1.9%	2,319,931	1.7%
	계	202	835,444,772,451	100%	114,438,193	100%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순위는 관객 점유율로 집계함.

외국영화 배급 순위를 보면, <어벤저스> 등을 배급한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가 모두 18편 배급해 23,180,435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관객 점유율 29.5%로 가뿐히 1위에 올랐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배급한 워너브러더스코리아가 뒤이어 2위에 자리했는데, 관객 점유율은 16.5%이다. 한편 지난해 1위였던 CJ E&M은 16편을 배급해 13.1% 관객 점유율로 3위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영화 배급에서 1위를 차지한 CJ E&M은 외국영화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직배사들 중에서는 2011년에 3위를 차지했던 이십세기폭스코리아가 5위로 내려앉았고,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코리아가 4위로 올라섰다. 유니버설픽처스는 <본 레거시>와 <19금 테드>를 배급했으며, 2012년 말에 <레미제라블>을 배급하면서 흥행 성적이 크게 올랐다. 한편 롯데와 NEW가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하였고, SBS콘텐츠허브가 5.5편의 외국영화를 배급해 배급 순위 8위에 올랐다. 씨너스엔터테인먼트는 모두 14편의 외국영화를 배급해 9위를 차지했다.

<표 16> 2012년 외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순 위	배급사	편수 (편)	전국 매출액 (원)	전국 매출 점유율	전국 관객 수 (명)	전국 관객 점유율
1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 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18	188,252,468,283	31.0%	23,180,435	29.5%
2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10	101,575,204,562	16.7%	13,023,205	16.5%
3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16	78,464,080,480	12.9%	10,319,671	13.1%
4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15	59,699,977,361	9.8%	8,039,929	10.2%
5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13	55,385,762,656	9.1%	7,153,738	9.1%
6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1.5	41,870,422,623	6.9%	5,761,292.5	7.3%
7	(주)텍스트엔터테인먼트윌 드(NEW)	5.5	32,154,770,965	5.3%	4,444,733	5.6%
8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5.5	8,039,696,750	1.3%	1,120,382.5	1.4%
9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14	5,606,702,018	0.9%	789,244.5	1.0%
10	(주)스마일이엔티	1	4,105,132,000	0.7%	565,773	0.7%
	기타	381.5	32,658,406,051	5.5%	4,424,752	5.5%
	계	501	607,812,623,749	100%	78,823,156	100%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순위는 관객 점유율로 집계.

\*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의 회사명이 변경되어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로 통일함.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영화 배급사별 관객 점유율을 살펴보면, 5개 회사가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CJ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NEW가 최근 2년간 5위권 내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배사의 경우 상위 5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회사는 소니 한 곳 정도로 볼 수 있다. 4개의 메이저 한국 회사와 4개의 메이저 직배사들이 5위권 이내에 들어왔다 사라졌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표 17> 연도별 전체 영화 배급사별 관객 점유율 (전국 기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배급사	편수 (편)	점유율 (%)	배급사	편수 (편)	점유율 (%)	배급사	편수 (편)	점유율 (%)	배급사	편수 (편)	점유율 (%)	배급사	편수 (편)	점유율 (%)
1	CJ	37	35.5	CJ	49	33.1	CJ	44	30.5	CJ	37.5	32.7	CJ	43	27.2
2	쇼박스	19	11.9	쇼박스	17	17.4	폭스	12	11.9	롯데	30.5	15.4	쇼박스	11	12.8
3	UPI	13	11.7	롯데	24	13.5	롯데	26	11.7	NEW	21.5	9.0	롯데	44	12.4
4	롯데	27	9.9	소니 브에나	21	9.8	위너	13	10.1	소니 브에나	19	8.5	NEW	16.5	12.1
5	소니 브에나	15	8.0	폭스	12	9.0	소니 브에나	22	10.1	쇼박스	15.5	8.3	소니	18	12.0
	기타	300	22.9	기타	300	17.2	기타	358	25.7	기타	396.5	26.1	기타	570.5	23.5
	계	411	100	계	423	100	계	475	100	계	520.5	100	계	703	100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5. 흥행영화

2012년은 한국영화가 시장을 주도한 한 해였다. 그 까닭인지 흥행 상위 10위권 내에 든 한국영화는 무려 7편이나 되었다. <도둑들>부터 <광해, 왕이 된 남자> <늑대소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내 아내의 모든 것> <연가시>까지 흥행에서 수위를 차지한 한국영화들은 단순한 흥행 성적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정치적 현상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영화의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신뢰도와 선호도는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영화 흥행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할리우드영화는 <어벤져스> <다크 나이트 라이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편뿐이다.

2012년에는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각각 1,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또한 상위 10위권에 오른 작품들이 모두 450만을 넘기는 등 평균적으로 흥행 성적이 상당히 높았다. 전체 흥행 1위는 <도둑들>로, 7월 개봉해 최대 스크린 수 1,072개까지 장악했다. <도둑들>은 전국 관객 12,983,182명을 동원했다. 이어 <광해, 왕이 된 남자>가 2위에 올랐다. 9월 개봉한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전국적으로 12,319,390명을 모았다. 1위와의 관객 수 차이가 50만 명 정도이다. 한편 3위에 오른 영화는 할리우드영화인 <어벤져스>로 전국 관객 수는 7,074,867명, 2위와의 관객 차이가 무려 524만 명이다. 4위는 한국영화인 <늑대소년>이 차지했다. <늑대소년>은 모두 7,068,454명(확장판 포함)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5위는 <다크 나이트 라이즈>로

6,396,528명의 관객을 모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4,897,551명이 봐 흥행 순위 6위에 올랐고, 이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4,853,123명을 동원하여 근소한 차이로 7위를 기록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는 4,710,454명을 불러들였다. 9위와 10위에 오른 <내 아내의 모든 것>과 <연가시> 역시 모두 4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관객 몰이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400만 관객을 넘긴 작품으로는 <건축학개론>과 <댄싱퀸>이 있으며, <부러진 화살>이 3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흥행에 성공한 한국영화들은 기획 장르영화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둑들> <타워> <연가시>와 같은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예견된 흥행을 이끌었고, <늑대소년> <건축학개론> <내 아내의 모든 것>은 정확한 관객 타깃을 목표로 하면서 로맨틱 드라마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광해, 왕이 된 남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사극에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극의 흥행을 주도했다. <피에타>로 인한 예술영화와 배급문제에 대한 관심 급증도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26년> <남영동 1985> <돈 크라이 마미> <부러진 화살> 등의 영화들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와 함께 거론되면서 2012년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의 흐름 속에 영화 콘텐츠가 반드시 언급되는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SNS 매체는 영화 흥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분명히 자리했고, 또 홍보 수단으로써의 중요성도 각인되는 한 해였다.

<표 18> 2012년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권

순위	영화명	개봉일	배급사	스크린 수	국적	관객 수	매출액
1	도둑들	2012-07-25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1,072	한국	12,983,182	93,664,844,500
2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09-13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810	한국	12,319,390	88,899,448,769
3	어벤저스	2012-04-26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 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967	미국	7,074,867	59,557,853,478
4	늑대소년 (확장판 포함)	2012-10-31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706	한국	7,068,454	49,458,287,500
5	다크 나이트 라이즈	2012-07-19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1,210	미국	6,396,528	47,644,838,000
6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2-08-08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694	한국	4,897,551	34,524,377,161
7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012-06-28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 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1,118	미국	4,853,123	41,163,951,235
8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	2012-02-02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699	한국	4,710,454	36,479,147,500



	대						
9	내 아내의 모든 것	2012-05-17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563	한국	4,598,583	34,222,160,500
10	연가시	2012-07-05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759	한국	4,513,026	32,154,766,664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스크린 수는 공식 개봉일 기준 일주일간 발생한 최다 스크린 수 집계

\*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의 회사명이 변경되어 소니픽쳐스릴리징월드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로 통일함.

한국영화 흥행 성적만을 분석했을 때 1천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2편, 400만 이상 천만 미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7편(<타워> 제외), 100만 이상 400만 미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도 23편에 달했다. 한국영화는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각각 흥행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3위의 <늑대소년>은 여성 관객들에게 어필하면서 706만 명(확장판 포함)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늑대소년>은 또한 11월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성수기 시즌으로 정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48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영화 순위 4위에 올랐으며 <광해, 왕이 된 남자>와 함께 사극(코스튬 드라마)의 저력을 과시했다. 5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는 사회드라마로서 47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2012년 한국영화 흥행 6위에서 10위까지는 전통적인 흥행 성과를 보여 왔던 장르 기획영화들이 차지했다. 비수기인 5월에 개봉했던 <내 아내의 모든 것>은 로맨틱코미디 장르로 4,598,58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좋은 흥행 성적을 낳았다. 여름 시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과 경쟁했던 <연가시>의 경우는 중고생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4,513,026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영화 순위 7위에 올랐다. 비수기인 3월에 개봉한 <건축학개론> 역시 4,110,645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영화 순위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건축학개론>은 30대 남성 관객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 첫사랑 불을 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했다. <댄싱퀸> 역시 기획 코미디영화로 4,057,546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2012년 1월 한국영화의 흥행 시작을 알렸다. 한국영화 흥행 순위 9위까지의 작품들은 모두 4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하면서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돌파를 뒷받침했다. 한편 한국영화 순위 10위에 오른 <부러진 화살>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면서 3,450,941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표 19> 2012년 한국영화 흥행작 상위 10위권

순위	영화명	개봉일	배급사	스크린 수	관객 수	매출액
1	도둑들	2012-07-25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1,072	12,983,182	93,664,844,500
2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09-13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810	12,319,390	88,899,448,769
3	늑대소년	2012-10-31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706	7,068,454	49,458,287,500
4	바람과 함께	2012-08-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	694	4,897,551	34,524,377,161

	사라지다	08	EW)			
5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2012-02-02	쇼박스㈜미디어플렉스	699	4,710,454	36,479,147,500
6	내 아내의 모든 것	2012-05-17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 EW)	563	4,598,583	34,222,160,500
7	연가시	2012-07-05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759	4,513,026	32,154,766,664
8	건축학개론	2012-03-22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593	4,110,645	30,219,800,500
9	댄싱퀸	2012-01-18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534	4,057,546	30,129,259,500
10	부러진 화살	2012-01-18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 EW)	453	3,450,941	25,878,110,500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스크린 수는 공식 개봉일 기준 일주일간 발생한 최대 스크린 수 집계

외국영화는 할리우드영화들 중에서도 흥행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순위권에 많이 올랐다. 상위 10위 영화 중에서 <레미제라블>을 제외한 대부분 외국영화, <어벤저스> <다크 나이트 라이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맨 인 블랙 3> <브레이킹 던 part 2>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007 스카이폴> <호빗: 뜻밖의 여정> 등이 모두 프랜차이즈 영화라는 점이 바로 그런 면을 보여준다. <레미제라블> 역시 뮤지컬 각색 영화라는 점에서 순수 창작 영화의 박스오피스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관객수 707만 관객을 돌파한 <어벤저스>와 485만 관객을 동원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37만 관객을 동원한 <맨 인 블랙3>, 260만 관객을 동원한 <호빗: 뜻밖의 여정>은 3D로 개봉하여, 3D콘텐츠에 대한 외국영화의 시장 점유가 지속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 2012년 외국영화 흥행작 상위 10위권

순위	영화명	개봉일	배급사	국적	스크린수	관객수	매출액
1	어벤저스	2012-04-26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 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미국	967	7,074,867	59,557,853,478
2	다크 나이트 라이즈	2012-07-19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미국	1,210	6,396,528	47,644,838,000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012-06-28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 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미국	1,118	4,853,123	41,163,951,235
4	맨 인 블랙 3	2012-05-24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 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미국	770	3,379,762	27,301,520,070
5	레미제라블	2012-12-19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미국	696	3,210,150	23,428,908,500

6	브레이킹 던 part2	2012-11-15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미국	665	2,654,819	18,909,598,065
7	호빗: 뜻밖의 여정	2012-12-13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미국	1,028	2,605,154	21,724,369,066
8	미션임파서블:고스트프로토콜	2011-12-15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미국	1,024	2,533,735	19,536,876,000
9	007 스카이폴	2012-10-26	소니픽쳐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미국	748	2,376,145	17,487,213,000
10	테이큰 2	2012-09-27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프랑스	682	2,308,596	17,581,098,553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 스크린 수는 공식 개봉일 기준 일주일간 발생한 최대 스크린 수 집계

\*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의 회사명이 변경되어 소니픽쳐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로 통일함.

2012년은 2010년에 비해 3D 영화가 많이 줄어든 한 해였다. 2010년부터 새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3D 영화 흥행 순위에서 2012년 1위를 차지한 영화는 <어벤져스>였다. <어벤져스>를 3D와 3D 아이맥스, 4D 상영으로 관람한 관객은 총 159만 명으로 707만 중 22.56%였다. 2위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다. 3D 영화 흥행 10위 이내에 든 작품이 전체 외국영화 흥행 10위 이내에 든 작품과 4편이나 겹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3D 관객 수가 아직은 2D 관객 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할리우드영화들은 이제 3D와 2D로 동시 개봉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외국영화들이 3D와 2D의 포맷으로 병행 개봉했다. 3D 흥행작 상위 10위의 영화 중에서 한국영화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3D>가 4위로 유일하다. 할리우드영화가 3D 포맷을 적극 수용하고 있고 HFR 등의 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데 반해, 한국영화의 3D 콘텐츠는 아직 미약한 단계이다. 그러나 한국 관객들 역시 점차 영화의 기술적 발달을 문화적 이슈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3D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 2012년 3D 영화 흥행작 상위 10위권

순위	영화명	개봉일자	3D 상영 비율	3D 관객수	총관객수 대비 3D 관객수 비율	3D매출액 (천원)	총매출액 대비 3D 매출액 비율
1	어벤져스	2012-04-26	46.2%	1,596,294	22.56	18,559,539	31.16
2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012-06-28	41.7%	1,260,176	25.97	14,479,695	35.18
3	장화신은 고양이	2012-01-12	40.1%	731,845	35.18	7,981,415	45.34
4	점박이:한반도의 공룡3D	2012-01-26	59.4%	705,830	67.17	7,326,974	75.68
5	호빗: 뜻밖의 여정	2012-12-13	63.1%	474,852	16.85	5,443,019	23.24

6	맨 인 블랙 3	2012-05-24	73.2%	424,565	12.56	4,926,361	18.04
7	아이스 에이지 4: 대륙 이동설	2012-07-25	19%	412,082	25.00	4,267,309	34.72
8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	2012-06-06	41%	381,070	23.38	4,013,567	32.05
9	새미의 어드벤처 2	2012-08-01	67.4%	362,462	24.87	3,697,437	34.06
10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신비의 섬	2012-01-19	44.6%	345,970	30.09	3,798,065	38.82
	기타			2,915,462		32,151,910	
평균	총합			9,610,608	22.0	106,645,293	36.83

\* 3D영화는 아이맥스3D 상영, 4D상영 수치를 포함. 단, 3D영화가 아닌 4D상영작 제외 (예: <R2B> 등)

2012년 3D영화는 개봉편수가 49편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시장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3D와 3D IMAX, 4D 상영으로 관람한 총관객이 <어벤저스>의 경우 159만 명,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경우 126만 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3D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은 영화는 지난 해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3D 관객 100만을 돌파한 영화는 2010년 7편이었고, 2011년에는 4편이었다. 총 극장 매출액 1조 4,552억원 중에서 3D 영화의 3D 극장 매출액은 1,06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7.33%의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최근 4년간 국내3D 영화 관객 및 극장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D영화 개봉편수	8편	24편	40편	49편
3D영화의 3D극장 상영 비중	13.3%	57.8%	47.7%	25.4%
총 극장 매출액	1,094,081	1,151,432	1,236,297	1,455,141
3D영화의 3D극장 매출액	21,243	190,010	172,474	106,645
전체 매출액중 3D극장 매출액 비중	1.9%	16.4%	13.9%	7.33%

2012년 10위권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국내 3D영화인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3D>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흥행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이후 3D 영화 제작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2013년에는 <미스터 고 3D>의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 3D 영화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할리우드영화인 <어벤저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의 다양한 영화들이 3D로 제작되어 국내에 개봉되었지만 3D와 2D 동시 상영이 많은 추세이고, 3D 자체의 매출액도 눈에 띄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관객 수에 비해 총매출액은 3D 영화들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배사인 소니의 매출액이 전체 배급사 순위에서는 2위인 점을 감안할 때, 3D 기술이 영화산업 전체 매출액 상승에는 확실한 대안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6. 전국 극장 및 멀티플렉스

2012년 전국 극장 수는 전년도 292개에서 314개로 늘었다. 2006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극장 수가 2012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것이 2012년 한 해의 현상인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12년 스크린 수는 모두 2,081개로 2011년 1,974개에 비해 107개가 늘었다. 2012년 휴·폐관한 극장은 6개, 스크린은 61개다.

<표 23>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연도	전국 인구(만 명)	총 관객(만 명)	극장 수(개)	스크린 수(개)	좌석 수(개)
2003	4,839	11,948	280	1,132	256,983
2004	4,858	13,517	302	1,451	297,584
2005	4,878	14,552	301	1,648	322,110
2006	4,899	15,341	321	1,880	354,691
2007	4,926	15,877	314	1,975	365,034
2008	4,954	15,083	309	2,004	362,657
2009	4,977	15,696	305	2,055	360,796
2010	5,052	14,681	301	2,003	349,640
2011	5,073	15,979	292	1,974	341,905
2012	5,094	19,489	314	2,081	358,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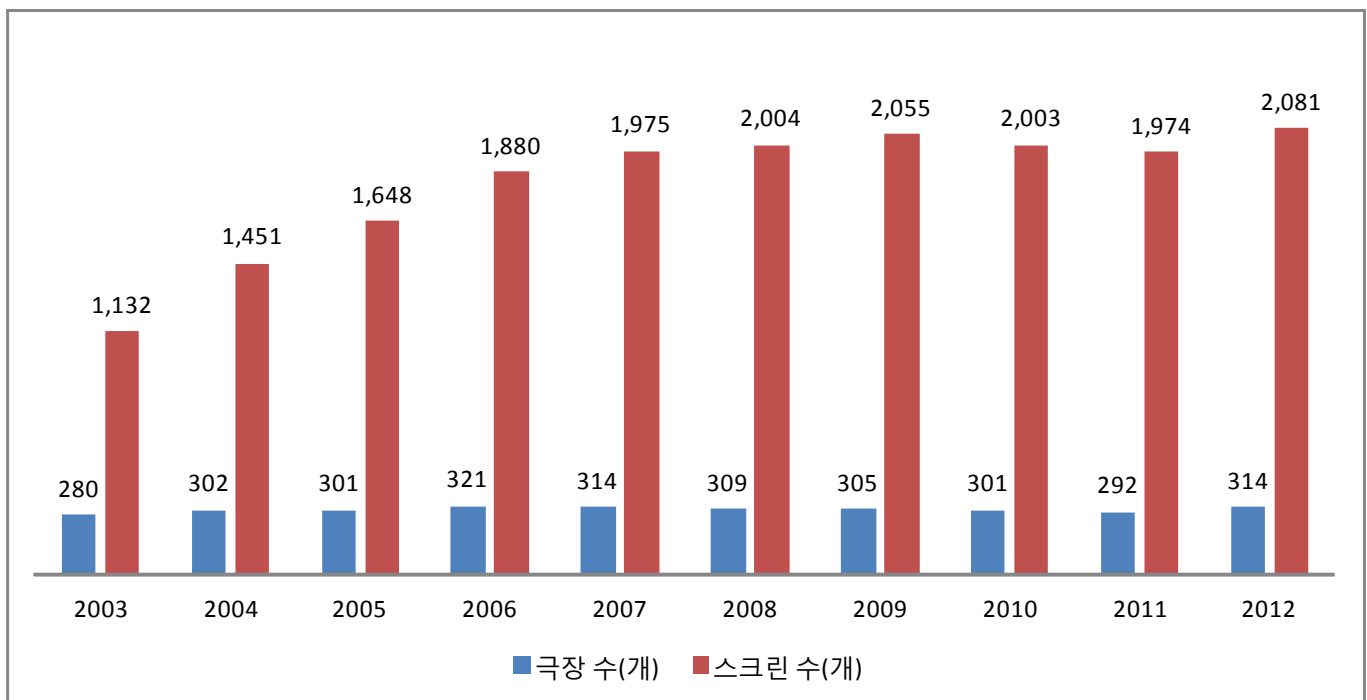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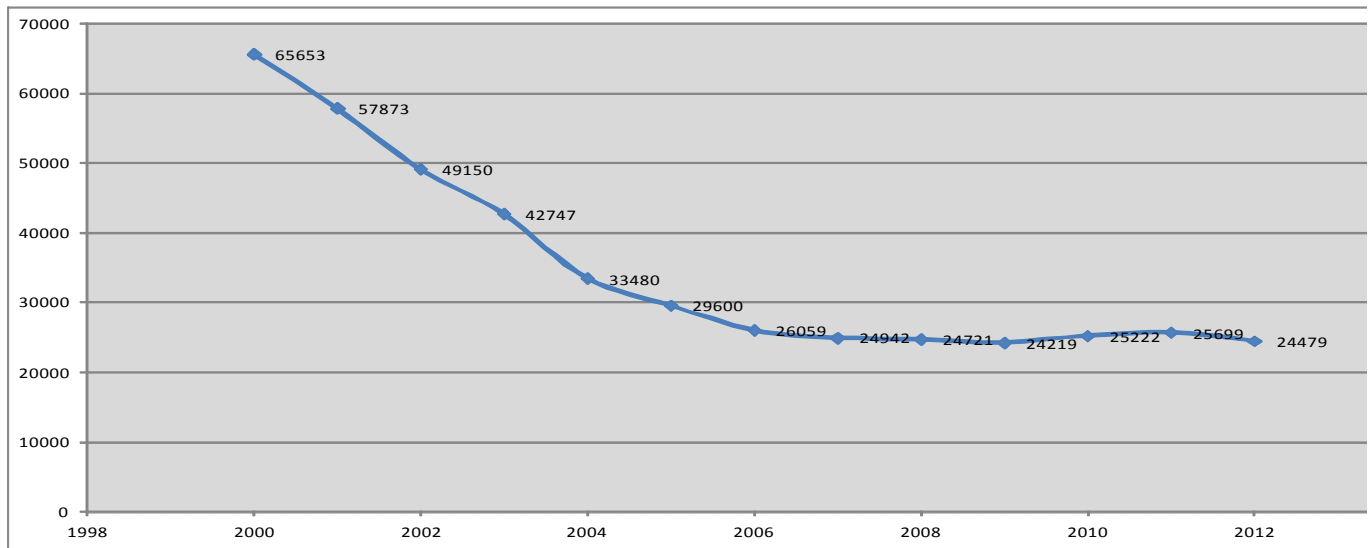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스크린 당 인구 수 (단위 : 명)

2012년에 스크린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 경남, 충북, 인천, 전북, 서울 등지이다. 지난해 스크린 수가 증가했던 대구는 줄어들었으며, 울산도 스크린 수가 약간 줄었다. 전반적으로 스크린 수가 조금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스크린 수 증가율은 4.9%를 나타냈다.

서울은 30개의 스크린이 늘어 총 스크린 460개로 기록되었다. 지난해 폐업한 극장이 있었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시 스크린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극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대전과 울산, 충남, 전남, 제주만이 변화가 없었다.

<표 24> 2012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단위 : 개)

지역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2011	2012	전년 대비		2011	2012	전년 대비		2011	2012	전년 대비	
			증감수	증감율			증감수	증감율			증감수	증감율
서울	66	71	5	7.6%	430	460	30	7.0%	80,327	84,737	4,410	5.4%
부산	24	25	1	4.2%	174	182	8	4.6%	33,134	34,038	904	2.7%
대구	17	18	1	5.9%	128	125	-3	-2.3%	20,769	21,813	1,044	5.0%
인천	14	16	2	14.3%	101	110	9	8.9%	16,474	18,425	1,951	11.8%
광주	11	12	1	9.1%	76	88	12	15.8%	15,228	16,514	1,286	8.4%
대전	10	10	0	0.0%	69	69	0	0.0%	12,364	12,791	427	3.4%
울산	4	4	0	0.0%	28	26	-2	-7.1%	5,058	3,904	-1,154	-22.8%
경기	64	67	3	4.7%	441	453	12	2.7%	71,485	74,419	2,934	4.1%
강원	8	9	1	12.5%	61	62	1	1.6%	9,494	9,694	200	2.1%

충북	8	9	1	12.5%	64	70	6	9.4%	10,840	12,099	1,259	11.6%
충남	13	13	0	0.0%	67	71	4	6.0%	9,829	10,298	469	4.7%
전북	12	13	1	8.3%	68	74	6	8.8%	11,215	12,129	914	8.1%
전남	7	7	0	0.0%	49	49	0	0.0%	7,833	7,591	-242	-3.0%
경북	14	15	1	7.1%	85	87	2	2.4%	15,187	15,396	209	1.3%
경남	18	20	2	11.1%	113	125	12	10.6%	18,913	20,979	2,066	10.9%
제주	5	5	0	0.0%	30	30	0	0.0%	3,755	3,832	77	2.0%
지방 합계	229	243	14	6.1%	1,554	1,621	-144	4.3%	261,578	273,922	12,344	4.7%
총계	295	314	19	6.4%	1,984	2,081	-181	4.9%	341,905	358,659	16,754	4.9%

2012년 전국 극장의 83.7%가 멀티플렉스<sup>3)</sup> 극장이다. 지난 해에 비해 멀티플렉스 극장 비중이 늘어났다.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수 비중은 94.5%로 지난해의 93.4%보다 1.1%p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남, 제주의 모든 극장이 멀티플렉스로 채워졌다(100%). 전남의 총 7개 극장 49개 스크린이 멀티플렉스였고, 제주 역시 5개 극장 30개의 스크린이 멀티플렉스였다.

멀티플렉스의 시장 점유율은 총관객 수의 95.3%를 보이고 있고, 총매출 점유율도 95.6%에 이른다. 충북 지역이 멀티플렉스 비중이 가장 낮아 80.9%의 관객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단관 극장들의 활동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표 25> 2012년 멀티플렉스 비중

지역	극장 수 (개)			스크린 수 (개)			관객 수 (명)			극장 매출 (원)		
	전체 극장 수	멀티 플렉스 극장 수	멀티플 렉스 비중	전체 스크 린수	멀티 플렉스 스크 린 수	멀티플 렉스 비중	전체 관객 수	멀티플렉스 관객 수	멀티플 렉스 비중	전체 극장 매출	멀티플렉스 극장 매출	멀티플 렉스 비중
서울	71	56	78.8	460	434	94.3	56,544,859	53,751,835	95.0	444,317,846,118	425,296,145,377	95.7
부산	25	22	88.0	182	177	97.2	16,403,412	15,713,031	95.7	117,094,318,515	112,625,649,000	96.1
대구	18	16	88.8	125	123	98.4	11,702,961	11,119,637	95.0	84,370,182,500	79,723,780,500	94.4
인천	16	13	81.2	110	100	90.9	9,487,842	9,239,042	97.3	72,441,521,500	70,990,812,000	97.9
광주	12	10	83.3	88	86	97.7	7,630,850	7,602,165	99.6	55,734,002,500	55,532,778,500	99.6
대전	10	7	70.0	69	58	84.0	7,531,706	6,585,240	87.4	55,117,143,856	48,689,546,856	88.3
울산	4	3	75.0	26	24	92.3	3,562,105	3,562,105	100	25,143,469,500	25,143,469,500	100
경기	67	61	91.0	453	439	96.9	42,320,166	40,287,574	95.2	316,545,945,403	301,706,964,403	95.3
강원	9	8	88.8	62	61	98.3	4,126,291	4,120,529	99.8	30,034,117,077	30,000,814,000	99.8
충북	9	8	88.8	70	64	91.4	4,663,915	3,776,815	80.9	32,732,253,000	26,647,135,000	81.4

3) 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너스, 프리미어, CJ CGV의 직영 및 위탁 경영 지점과 기타 7개관 이상 모든 극장을 멀티플렉스로 집계하고 있다.

충남	13	8	61.5	71	56	78.8	5,436,250	5,233,024	96.2	39,038,251,500	37,588,778,500	96.2
전북	13	10	76.9	74	68	91.8	5,480,258	5,291,320	96.5	39,444,164,500	38,339,664,500	97.1
전남	7	7	100	49	49	100	3,288,902	3,288,902	100	23,069,183,000	23,069,183,000	100
경북	15	13	86.6	87	85	97.7	5,689,343	5,369,005	94.3	40,336,247,000	38,006,044,000	94.2
경남	20	16	80.0	125	113	90.4	9,359,392	9,199,533	98.2	67,703,662,000	66,645,344,000	98.4
제주	5	5	100	30	30	100	1,663,992	1,663,992	100	12,019,169,500	12,019,169,500	100
합계	314	263	83.7	2,081	1,967	94.5	194,892,244	185,803,749	95.3	1,455,141,477,469	1,392,025,278,636	95.6

\* 극장 수와 스크린 수는 2012년 12월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근거. 따라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상영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관객수와 매출액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은 CJ CGV(이하 CGV), 프리머스시네마(이하 프리머스)<sup>4)</sup>, 롯데시네마, 메가박스<sup>5)</sup>의 총 4개이다. 전체 극장 중 4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 수는 263개로 79.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77.4%보다 약 2.2% 상승한 모습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의 스크린 수는 1,967개로 전체 2,081개 스크린 가운데 9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체인 극장을 제외한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은 13개 극장, 116개 스크린으로 2011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26> 2012년 4대 멀티플렉스 (단위 : 개)

구분				2011			2012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극장 수	증감 수	전년대비 증감(%)	스크린 수	증감 수	전년대비 증감(%)	좌석 수	증감 수	전년대비 증감(%)	운영 형태			
																직영 극장 수	직영 비중	위탁 극장 수	위탁 비중
멀티플렉스	3대 멀티 체인	CG V	CG V	85	673	116,643	93	8	9.4%	731	58	8.6%	129,933	13,290	11.4 %	58	62%	35	38%
			프리머스	23	161	24,024	19	-4	-17.4 %	127	-34	-21.1 %	18,660	-5,364	-22.3 %	6	32%	13	68%
			소계	108	834	140,667	112	4	3.7%	858	24	2.9%	148,593	7,926	5.6%	64	57%	48	43%
		롯데시네마		69	507	89,147	84	15	21.7%	590	83	16.4 %	101,404	12,257	13.7 %	55	65%	29	35%
		메가박스		51	384	65,287	54	3	5.9%	403	19	4.9%	67,229	1,942	3.0%	21	39%	33	61%
		소계		228	1,725	295,101	250	22	9.6%	1,851	126	7.3%	317,226	22,125	7.5%	140	56%	110	44%
	기타 멀티플렉스			14	132	25,152	13	-1	-7.1%	116	-16	-12.1 %	23,030	-2,122	-8.4 %	-	-	-	-

4) 프리머스시네마는 CJ 계열 체인으로 포함.

5) 메가박스와 씨너스는 2011년 합병했고, 명칭을 메가박스로 정했다.



중계	242	1,857	320,253	263	21	8.7%	1,967	110	5.9%	340,256	20,003	6.2%	-	-	-	-
비 멀티플렉스	53	127	23,759	51	-2	-3.8%	114	-13	-10.2%	18,403	-5,356	-22.5%	-	-	-	-
극장 총계	295	1,984	344,012	314	19	6.4%	2,081	97	4.9%	358,659	14,647	4.3%	-	-	-	-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극장 상위 10위권은 대부분 대기업 멀티플렉스가 차지했다.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CGV가 5개 극장, 롯데시네마가 3개 극장을 순위권에 올렸다. 작년 순위에서 바뀐 부분은 롯데시네마노원이 롯데시네마건대입구에 밀려 3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한편 4대 멀티플렉스 체인에 속하지 않는 독자 멀티플렉스인 천안의 야우리시네마가 9위에 오른 것이 눈에 띈다. 야우리시네마는 매년 관객 동원 극장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표 27> 2012년 관객 동원 상위 10위권 극장 (단위 : 개)

순위	광역단체	지역단체	극장명	스크린 수	좌석 수
1	서울시	강남구	메가박스코엑스16	16	4,218
2	서울시	광진구	롯데시네마건대입구11	11	2,111
3	서울시	노원구	롯데시네마노원10	10	1,714
4	서울시	용산구	CGV용산11	11	2,217
5	서울시	영등포구	CGV영등포11	11	2,360
6	인천시	남동구	CGV인천14	14	3,829
7	경기도	수원시	CGV수원8	8	2,637
8	서울시	성동구	CGV왕십리10	10	2,144
9	충청남도	천안시	야우리시네마10(천안)	10	1,725
10	울산시	남구	롯데시네마울산9	9	1,568

## 7. 2012년 영화 디지털온라인 시장 현황

2012년 영화 부가판권시장은 디지털온라인 시장<sup>6)</sup>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2년 영화 디지털온라인 시장 규모는 2,158억 원으로 2009년 888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홈비디오와 같은 패키지 상품을 제외하면 3년 동안 각각 56.2%, 86.1%, 36.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4년 동안 2.5배 가까이 성장해 영화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2012년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이러한 비약적 성장은 단연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다. 패키지 시장은 하락 추세가 늦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호핀과 같은 일반유형 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OSP)와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OSP를 통한 인터넷 VOD<sup>7)</sup>는 상대적으로 외연 확장이 더딘 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은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고 있는 웹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유형OSP에서 영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특수유형OSP에서의 합법 유통 매출이 예년에 비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전체 디지털온라인 시장 매출액

구분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전년대비 변화율 (%)	매출액	전년대비 변화율 (%)	매출액	전년대비 변화율 (%)	매출액	전년대비 변화율 (%)
인터넷 VOD	223억	-	267억	19.7%	501억	87.6%	618억	23.3%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262억	-	491억	87.4%	910억	85.3%	1,310억	43.9%
패키지 상품	403억	-	351억	-12.9%	298억	-15.1%	230억	-22.8%
합계	888억	-	1,109억	24.8%	1,709억	54.1%	2,158억	26.3%

\* 인터넷 VOD에는 모바일 등 N스크린 서비스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정액기반 서비스나 무료 서비스는 매출로 환산되어 포함되지는 않았다.

6) 영화 부가판권시장 또는 부가시장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부가시장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도 많은 관계자 분들이 동의하나 대체할 만한 용어는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이라는 표현은 2012년 상반기에 운영된 “부가시장 활성화 전략 TFT”에서 최초로 도출되었음을 밝힌다.

7)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인터넷 VOD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IPTV, 웹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이 모두 인터넷 VOD 서비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영화 디지털 온라인 유통이 인터넷 VOD라는 표현으로 모두 수렴될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를 TV형 VOD 서비스로 그 외 웹하드 등을 통한 특수유형OSP의 서비스와 네이버, 호핀과 같은 일반유형OSP의 서비스를 인터넷VOD라고 칭하기로 한다. 모바일 서비스는 T스토어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TV스토어, SK플래닛의 호핀 등 다양한 서비스사업자가 N스크린 유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리작업이 불가능해지거나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 부분은 인터넷 VOD 부분에 포함하여 발표한다. 향후, 영화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실행이 되고 소비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별로 통계가 집계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될 것이다.

##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2012년 말 기준 IPTV 가입자 640만명,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500만명 시대다. 1,140만이 넘는 가정에 IPTV 또는 디지털케이블TV가 설치되어 있고 최소한 그 몇 배 이상의 소비자가 잠정적으로 영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영화 서비스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지난 4년간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체 영화 디지털온라인 시장의 61%를 차지하며 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TV를 통한 VOD 서비스의 성장세는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그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다. 우선 TV라는 미디어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TV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제공하는 미디어였다면 이제 TV는 소비자의 영상물에 대한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존중되는 공간으로 변했다. 물론 스마트TV 보급과 함께 검색이나 쇼핑, 게임도 경쟁 콘텐츠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영상물간, 특히 방송과 영화가 경쟁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영상물 이용 패턴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또한 TV다. 영화의 특성상 무엇보다 스크린의 사이즈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TV에서 선호되는 영화와 모바일이나 PC에서 많이 이용되는 영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IPTV나 디지털케이블TV는 통신사업자의 기본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떤 플랫폼보다 많은 영화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외 메이저 영화의 경우 미니엄개런티(MG), DRM 이슈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확산되어 있지 않은데 IPTV나 디지털케이블TV에서는 편리하게 고화질로 이용이 가능하다.<sup>8)</sup> 이외에도 사실 빼 놓을 수 없는 것,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접근이다. 기본적으로 1140만의 지불 능력과 의사가 있는 가구를 확보한 상태에서 콘텐츠 이용 유도를 위한 다각도의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과 각종 할인 이벤트 시행도 있지만 결제 수단의 편의성 제공은 한번 이용해본 소비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케 한다. 특히 통신사업자와 각종 카드사의 포인트 연동은 영화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구매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듯하다.

<표 29>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유통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금액	262	491	910	1,310
전년대비 변화율 (%)	-	87.4%	85.3%	43.9%

2012년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에서의 영화 순위는 <표>와 같이 집계되었다.<sup>9)</sup> 2011년도에 <써니>가

8) 물론 TV라는 미디어의 특성상 등급이나 소재의 이슈를 들어 등록되지 못하는 영화들도 있다.

9)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서는 영화별 홀드백에 따라 1만원에서부터 몇 백원까지 존재하며, 또한 정액제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까지 극장 대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가격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 건수만으로는 투명한 순위 매김이나 매출 추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의 자료 협조에 따라, 12월 말 기준 잠정집계이기는 하나 매출을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는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발전과 영화산업 전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화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에 연동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미흡하나마 영화별 매출 및 이용 건수를 월별로 먼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3년 1월 24일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관영진 차관과 주요 영화 투자배급사 및 온라인배급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로그(대표 윤준원), 브로드밴드미디어(대표 임진채), KT미디어허브(대표 김주성), 홈초이스(대표 왕용훈)와 영화 디지털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뿐만 아니라 PC, 모바일 서비스까지 석권한 반면 2012년도에는 디바이스별 영화 이용 선호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스크린이 크고 가족 단위의 영화 시청이 가능한 TV 플랫폼에서는 극장에서와 동일하게 <도둑들>이 1위를 차지했다. <후궁 : 제왕의 첩>, <건축학개론>, <범죄와의 전쟁>은 인터넷 VOD와 같이 수위에 올랐다. 특이할만한 점은 인터넷VOD에 비해 해외 메이저 영화를 다수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10위 안에 외국영화는 <어벤저스> 단 한편에 불과하다.

<표 30> 2012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순위

No	영화명	매출	이용 건수
1	도둑들	3,360,302,561	802,780
2	후궁-제왕의 첩	3,288,853,143	887,914
3	건축학개론	2,574,357,172	680,150
4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2,339,034,621	733,180
5	내 아내의 모든 것	1,928,070,215	528,393
6	완득이	1,925,377,751	580,970
7	어벤저스	1,889,365,528	410,602
8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689,269,297	390,252
9	연가시	1,689,012,179	422,432
10	돈의 맛	1,669,815,650	447,583

<표 31> 2012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한국영화 순위

No	영화명	매출	이용 건수
1	도둑들	3,360,302,561	802,780
2	후궁-제왕의 첩	3,288,853,143	887,914
3	건축학개론	2,574,357,172	680,150
4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2,339,034,621	733,180
5	내 아내의 모든 것	1,928,070,215	528,393
6	완득이	1,925,377,751	580,970
7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689,269,297	390,252
8	연가시	1,689,012,179	422,432
9	돈의 맛	1,669,815,650	447,583
10	은교	1,546,815,752	433,008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표 32〉 2012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외국영화 순위

No	영화명	매출	이용 건수
1	어벤저스	1,889,365,528	410,602
2	미션임파서블 : 고스트프로토콜	1,354,565,345	421,901
3	배틀쉽	1,105,881,672	341,315
4	메리다와 마법의 숲	932,153,930	136,644
5	초한지 - 천하대전	926,069,803	231,509
6	타이탄의 분노	924,298,798	259,011
7	브레이킹 던 part1	904,689,265	354,882
8	맨 인 블랙 3	892,818,389	252,881
9	리얼 스틸	868,344,799	281,418
10	신들의 전쟁	854,086,629	335,994

## 인터넷 VOD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플랫폼인 TV 시장이 가입 회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성장 동력을 홍보 마케팅 부문에서 찾고 있다면 웹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명 인터넷 VOD 시장은 2011년 501억원 규모를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87.6%에 달하는 성장을 보인 후 2012년도에는 618억원으로 23.3% 성장하였다. 일반유형OSP와 특수유형OSP의 매출 비율은 33 대 67로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OSP의 영화 매출이 일반유형OSP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류의 조사는 처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일반유형OSP에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한 것과 일반유형OSP 매출이 좋지 않았던 2011년에 87.6%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특수유형OSP에서의 매출은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PC, 모바일 등을 통한 N스크린 유통의 활성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웹하드등록제 시행 및 잦은 성폭력 범죄 발생으로 인한 검찰 및 경찰의 웹하드 단속 강화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아이러니컬하게도 웹하드에 대한 규제가 이 플랫폼에서의 유해/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고 이러한 유해/불법 콘텐츠의 필터링은 이용자를 감소시키고 합법 영화 이용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향후 웹하드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와 어떻게 점점 더 과감해지는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향후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표 33〉 인터넷 VOD 영화 유통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금액	223	267	501	618
전년 대비 변화율 (%)	-	19.7%	87.6%	23.3%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VOD 서비스를 통한 영화 순위에서는 〈후궁 : 제와의 첩〉이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외국영화로는 〈브레이킹 던 part1〉이 1위를 차지했다. 〈완벽한 파트너〉와 프랑스영화 〈언터처블

: 1%의 우정>, 인도영화 <세 일간이> 등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특이할만한 점이다.

<표 34> 2012년 인터넷 VOD 영화 순위<sup>10)</sup>

No	한국영화		외국영화	
	영화명	이용건수	영화명	이용건수
1	후궁 : 제왕의 첩	631,000	브레이킹 던 part1	248,000
2	건축학개론	435,000	언터처블 : 1%의 우정	220,000
3	은교	391,000	세 일간이	123,000
4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300,000	이클립스	89,000
5	완벽한 파트너	286,000	초한지 : 천하대전	86,000
6	도가니	240,000	트와일라잇	77,000
7	완득이	190,000	뉴문	76,000
8	써니	190,000	초한지 - 천하대전	70,000
9	도둑들	180,000	모모와 다락방	66,000
10	부러진 화살	146,000	말할 수 없는 비밀	51,992

<표 35>는 국내 대표적인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인 T스토어의 2012년 영화 부문 매출 기준 순위다. TV플랫폼과 순위는 다소 다르지만 언급되는 영화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며, T스토어에서 외국영화는 10위권 내에 1편에 불과해 한국영화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다.

<표 35> 2012년 T스토어 영화 이용 순위<sup>11)</sup>

No	영화명
1	후궁 : 제왕의 첩
2	건축학개론
3	은교
4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5	돈의 맛
6	도둑들
7	완득이
8	어벤저스
9	내 아내의 모든 것
10	연가시

10) 이용건수 기준 순위이며 백단위 절사함.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조사는 전체 플랫폼의 자료의 취합하여 도출한 자료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나, 인터넷 VOD 영화 순위는 주요 영화 온라인배급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도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순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참고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온라인배급사는 자체 집계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정확한 통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향후 영화 온라인상영권 통합전산망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11) SK플래닛 T스토어 제공 자료로 매출 기준 순위이다.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서 독립영화의 이용 순위를 매기기는 어려우나 <표 36>는 독립영화 전문 온라인 배급사인 인디플러그에서 유통한 영화의 전체 플랫폼에서의 매출 기준 순위로 2012년 한 해 가장 많이 이용된 독립영화를 가늠케 한다.

<표 36> 2012년 인디플러그 배급 한국독립영화 이용 순위

순위	영화명
1	악인은 너무 많다
2	돼지의 왕
3	MB의 추억
4	파닥파닥
5	철암계곡의 혈투
6	두 개의 문
7	줄탁동시
8	고양이 춤
9	위도
10	똥파리

### 패키지 시장

2012년 패키지 시장의 자료는 KD미디어에서 취합하여 제공하였다. 패키지 시장 규모는 다시 한 번 하락세를 확인해야 했다. 2012년도에는 230억원으로 전년대비 23%나 축소되었다. 하락세가 더 커지는 추세다. 블루레이DVD, DVD팝, 셋탑박스를 탑재한 블루레이플레이어 보급 확산 등 신규 시장을 창출하면서 패키지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영화산업 강대국으로, 자국영화 점유율이 외국영화보다 강세이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인프라를 갖춘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블루레이DVD를 포함하여 DVD 자체를 제작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영화들이 DVD 제작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루레이DVD 온라인 유통사와 관련 카페들은 신규 블루레이DVD 출시 시 문자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거나 블루레이DVD 예약 판매를 하는 등 일부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표 37> 패키지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금액	403	351	298	230
변화율	-	-12.9%	-15.1%	-22.8%

패키지 상품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영화는 <최종 병기 활>로 DVD에서는 <완득이>에 뒤져있지만 블루레이

DVD 판매수와 합산하면 <최종 병기 활>이 1위를 기록했다. <완득이>와 <범죄와의 전쟁>은 근소한 차로 2위, 3위를 기록하였다.

<최종 병기 활>은 2011년 8월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 전쟁, 사극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블루레이 DVD 판매를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해도 한국영화의 패키지 상품 판매 기록은 외국영화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온라인 유통 부문에서는 한국영화가 강세라고 할 수 있지만 패키지 시장에서는 외국영화가 단연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소장 가치가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VD, 블루레이DVD 통합 순위는 <어벤저스>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차지했다.

<표 38> 2012 년 한국 영화 DVD 판매 순위

No	영화명
1	완득이
2	최종 병기 활
3	범죄와의 전쟁
4	오직 그대만
5	도가니
6	부러진 화살
7	특수본
8	은교
9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0	마이웨이

<표 39> 2012 년 외국영화 DVD 판매 순위

No	영화명
1	어벤저스
2	메리다와 마법의 숲
3	다크 나이트 라이즈
4	오페라의 유령
5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
6	리얼 스틸
7	브레이킹 던 Part 1
8	셜록 홈즈
9	장화신은 고양이
10	미션 임파서블 4



<표 40> 2012 년 한국 영화 블루레이DVD 판매 순위

No	영화명
1	최종 병기 활
2	범죄와의 전쟁
3	고지전
4	완득이
5	도가니

<표 41> 2012 년 외국 영화 블루레이DVD 판매 순위

No	영화명
1	다크 나이트 라이즈
2	어벤저스
3	프로메테우스
4	메리다와 마법의 숲
5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6	오페라의 유령
7	아바타 3D
8	리얼 스틸
9	타이타닉
10	미션 임파서블 4

영화 디지털 온라인 유통 시장은 매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고성장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1999년 9000억원에 육박하던 홈비디오 시장이 2012년 23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그 위에 온라인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시장은 불법 유통 자체의 근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미디어 환경 변화는 N스크린 유통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타고 있고,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의 글로벌 시장 전략 안에서 한국의 콘텐츠 유통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또 이러한 미디어 융합, N스크린, 글로벌 유통의 흐름은 스마트 기기 확산과 함께 불법 유통의 가능성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는 미등록 웹하드나 등록 웹하드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렌트와 같이 파일공유 방식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유통을 통해 불법 파일 확산은 더 빠르고 편리해지고 더 과감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통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고성장 추세는 다시 한 번 꺾일 수 있다.

콘텐츠의 불법 유통 자체가 없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웹기반 서비스에서의 건전한 영화 유통 정착과 콘텐츠의 N스크린 유통 표준 마련, 그리고 글로벌 유통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에서의 불법 확산을 막고,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플랫폼의 확산과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서의 영화산업 상생을 위한 시장 내 표준 마련도 중요하다.

## 8. 한국영화 제작비 및 투자 수익성

2012년에 개봉한 한국영화는 총 174편<sup>12)</sup>으로 전체 제작비 총액은 3532.2억 원<sup>13)</sup>으로 추산되었다. 2012년 한국영화의 평균 총제작비는 20.3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는 2011년 평균인 22.7억 원과 비교하면 2.2억 원이 감소하였고, 2003~2004년도 41.6억 원에 비하면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08년 이후 한국영화 극장 개봉작 중 저예산영화 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총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영화가 109편으로 전체 한국영화 개봉작의 62.6%를 차지하여 편수나 비중의 부분에서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에 비해 저예산영화의 제작이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2012년부터 개봉작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소위 예로 영화로 불리는 성인물이나 콘서트 공연물 등도 극장에서 1일 이상 개봉할 경우 개봉작의 범주 내로 포함시키게 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영화를 제외한 한국영화 개봉작의 평균 제작비는 46.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억 원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균 순제작비는 전년에 비해 2.1억 원 줄어들었으나 평균 마케팅비는 오히려 0.8억 원이 증가하였다. 2012년 한국영화의 극장 관객 수 및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많은 흥행작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마케팅비가 조금 상승한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연도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

구분	순제작비(A)		마케팅비(P&A)(B)		총제작비 (A + B)
	평균 순제작비 (억 원)	비중	평균 마케팅비 (억 원)	비중	평균 총제작비 (억 원)
2003	28.4	68.3%	13.2	31.7%	41.6
2004	28.0	67.3%	13.6	32.7%	41.6
2005	27.3	68.4%	12.6	31.6%	39.9
2006	25.8	64.2%	14.4	35.8%	40.2
2007	25.5	68.5%	11.7	31.5%	37.2
2008	20.7	68.8%	9.4	31.2%	30.1
2009	15.6	67.5%	7.5	32.5%	23.1
2010	14.2	65.7%	7.4	34.3%	21.6
2011	15.5	68.3%	7.2	31.7%	22.7
2012	13.4	66.0%	6.9	34.0%	20.3

12) 2012년 개봉작 175편 중 <늑대소년 확장판>을 제외한 수치임

13) 2012년 한국영화 제작비 총액(추산) = 2012년 개봉편수 × 2012년 평균 총제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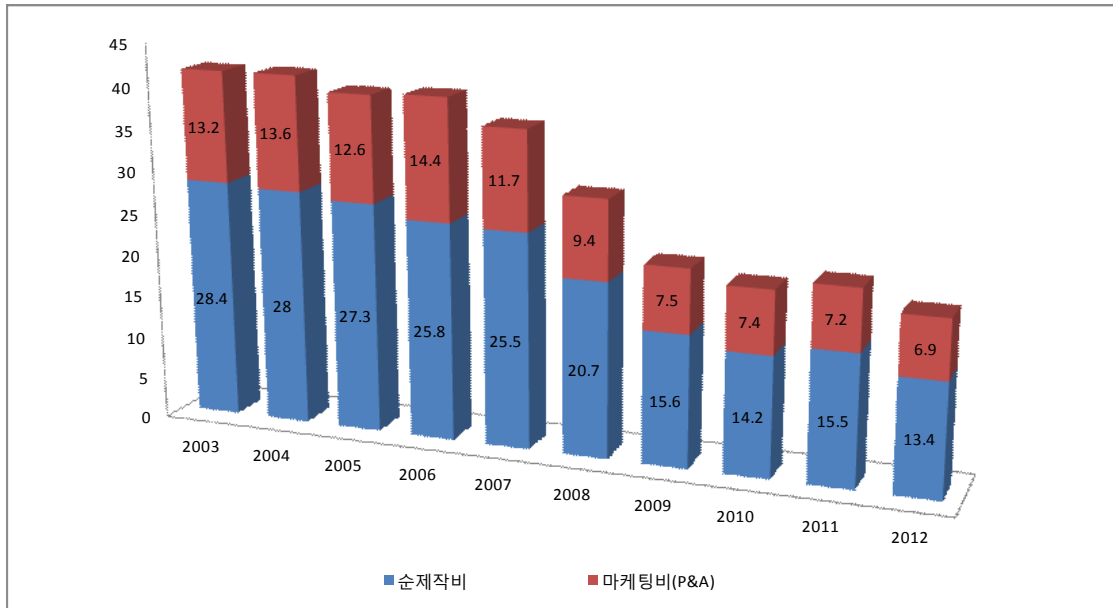


그림 10 연도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총제작비 구성

<표 43> 연도별 총제작비 10억 미만 제외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

구분	순제작비(A)		마케팅비(P&A)(B)		총제작비 (A + B)
	평균 순제작비 (억 원)	비중	평균 마케팅비 (억 원)	비중	평균 총제작비 (억 원)
2008	30.8	68.1%	14.3	31.9%	45.2
2009	30.3	59.1%	21.0	40.9%	51.3
2010	27.2	64.9%	14.7	35.1%	41.9
2011 <sup>14)</sup>	32.5	67.6%	15.6	32.4%	48.1
2012 <sup>15)</sup>	30.4	65.0%	16.4	35.0%	46.8

14) 2011년도에는 총제작비는 10억원 미만이지만,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이상인 작품 1편이 포함된 수치임

15) 2012년도에는 총제작비는 10억원 미만이지만,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이상인 작품 5편이 포함된 수치임

<표 44> 연도별 총제작비 구간별 한국영화 개봉편수 분포

구분 (억 원)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합계
2008	편수 (편)	38	10	14	9	12	9	9	1	2	0	4	108
	비율	35.2%	9.3%	13.0%	8.3%	11.1%	8.3%	8.3%	0.9%	1.9%	0.0%	3.7%	100%
2009	편수 (편)	64	10	9	10	4	7	6	0	2	3	3	118
	비율	54.2%	8.5%	7.6%	8.5%	3.4%	5.9%	5.1%	0.0%	1.7%	2.5%	2.5%	100%
2010	편수 (편)	73	16	12	7	12	9	5	1	1	1	3	140
	비율	52.1%	11.4%	8.6%	5.0%	8.6%	6.4%	3.6%	0.7%	0.7%	0.7%	2.1%	100%
2011	편수 (편)	82	10	6	10	14	10	6	3	1	1	3	146
	비율	56.2%	6.8%	4.1%	6.8%	9.6%	6.8%	4.1%	2.1%	0.7%	0.7%	2.1%	100%
2012	편수 (편)	109	12	5	9	10	11	7	6	1	0	4	174
	비율	62.6%	6.9%	2.9%	5.2%	5.7%	6.3%	4.0%	3.5%	0.6%	0.0%	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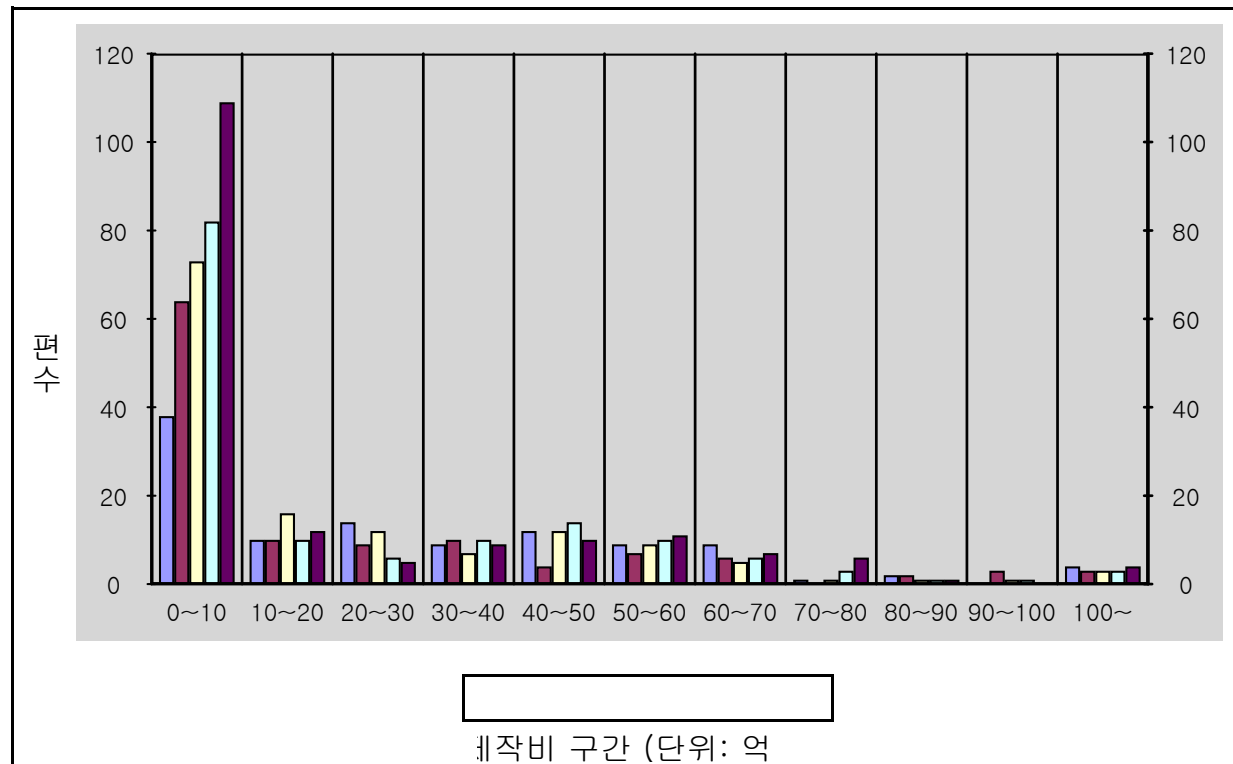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 총제작비 구간별 한국영화 개봉편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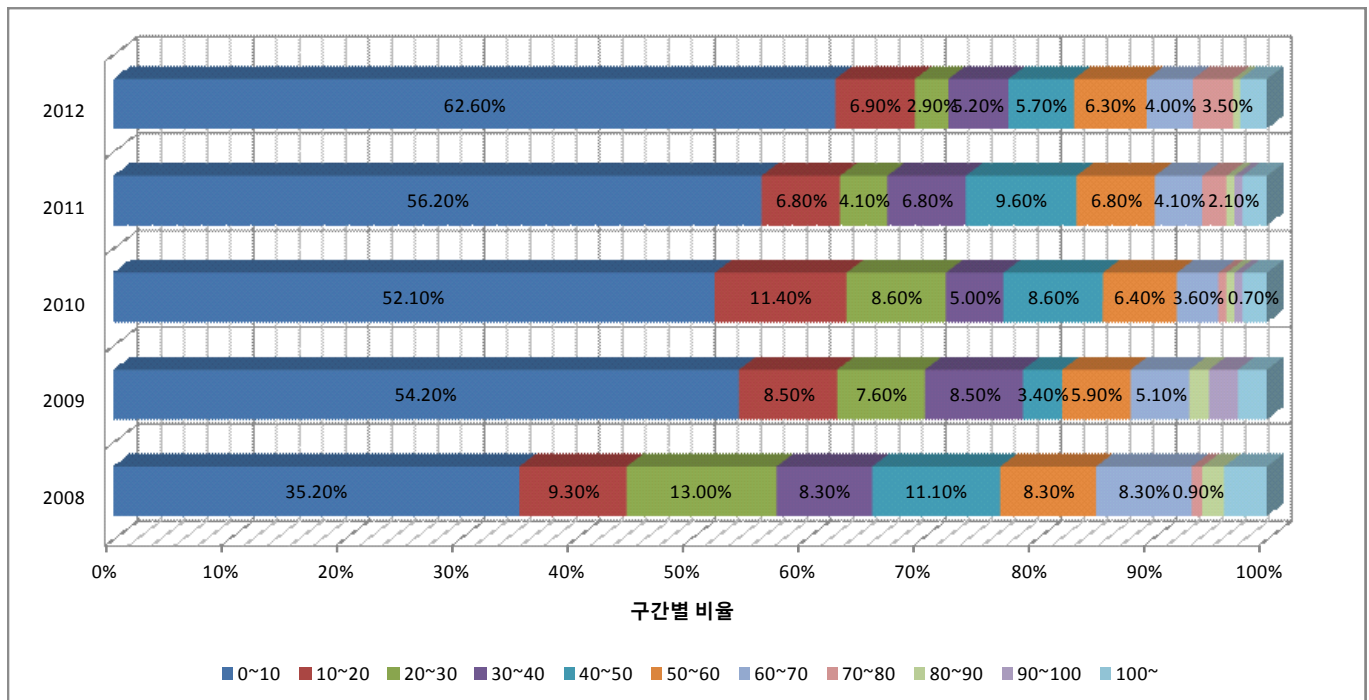


그림 12 연도별 총제작비 구간별 한국영화 개봉편수 분포 비율

2012년 개봉한 한국영화 중 투자 수익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상업영화는 70편<sup>16)</sup>으로 전년 65편에 비해 5편 증가하였다. 해당 영화의 평균 총제작비는 46.8억 원(평균 순제작비 30.4억원, 평균 마케팅비 16.4억원)으로 전체 개봉작의 평균 제작비보다 두 배 이상 큰 수치이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 개봉영화 중 총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저예산영화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2년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174편 중 요건에 맞는 70편을 기준으로 산정한 투자수익률은 13.0%로 잠정 집계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한국영화 개봉작 제작비 간이조사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sup>17)</sup>를 근거로 추정된 가집계 결과이긴 하지만,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2005년도 투자수익률 7.9%보다 무려 5.1%가 높게 산출되었다.

한국영화 투자수익률 13.0%를 기록한 것은 영화산업 내에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 2012년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돌파, <도둑들>, <광해> 등 1천만 명 이상의 영화 2편을 포함하여 400만 이상의 영화 10편 배출(<타워> 포함) 등 한국영화 흥행에 대한 좋은 징조는 많았으나, 2007~2008년 -40%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을 거친 이후에도 2011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해 오던 영화산업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이다.

16) 한국영화 투자 수익성 분석 대상은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배급되는 경향의 영화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므로 2012년에 극장 개봉한 한국영화 174편 중 총제작비 10억원 미만이고,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미만인 작품 104편은 제외함.

17) 2013년 1월 2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관객수 및 매출액 기준.

한편 해당 영화 수익성의 잣대가 되는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영화는 총 22편으로 전체 상업영화 70편 중 약 31.4%에 해당하였고, 이 중 투자 수익률 100%를 상회하는 작품은 12편으로 전체의 약 17.1%에 해당하였다.

<표 45> 2003~ 2012년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매출	159,036	285,462	336,786	388,058	266,927	200,839	245,821	263,449	293,916	370,428
총비용	173,090	276,958	312,117	513,640	448,813	355,667	282,945	296,001	344,700	327,943
총이익	-14,054	8,504	24,669	-125,582	-181,886	-154,827	-37,123	-32,552	-50,784	42,484
투자 수익률	-8.1%	3.1%*	7.9%	-24.5%	-40.5%	-43.5%	-13.1%	-11.0%	-14.7% <sup>18)</sup>	13.0%

\* 2003~2004년의 수익률은 표본 분석한 결과이고, 2005년부터는 한 해 극장 개봉된 한국영화에 대한 전수 추정치

\*\* 2004년부터 전국 관객 수 집계기 실시됨에 따라 2004년 투자 수익성 분석 종료 이후 2004년도 전체 개봉 영화에 대한 전수 추정치를 다시 산정하였으며, 이 경우 2004년 투자 수익률은 -6.20%임

\*\*\* 2010년부터는 극장 개봉된 한국영화 중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배급되는 경향의 영화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함 (총비용 10억원 미만이고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미만인 작품 제외)

\*\*\*\* 2012년 산출결과는 한국영화 개봉작 제작비 간이조사 및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가집계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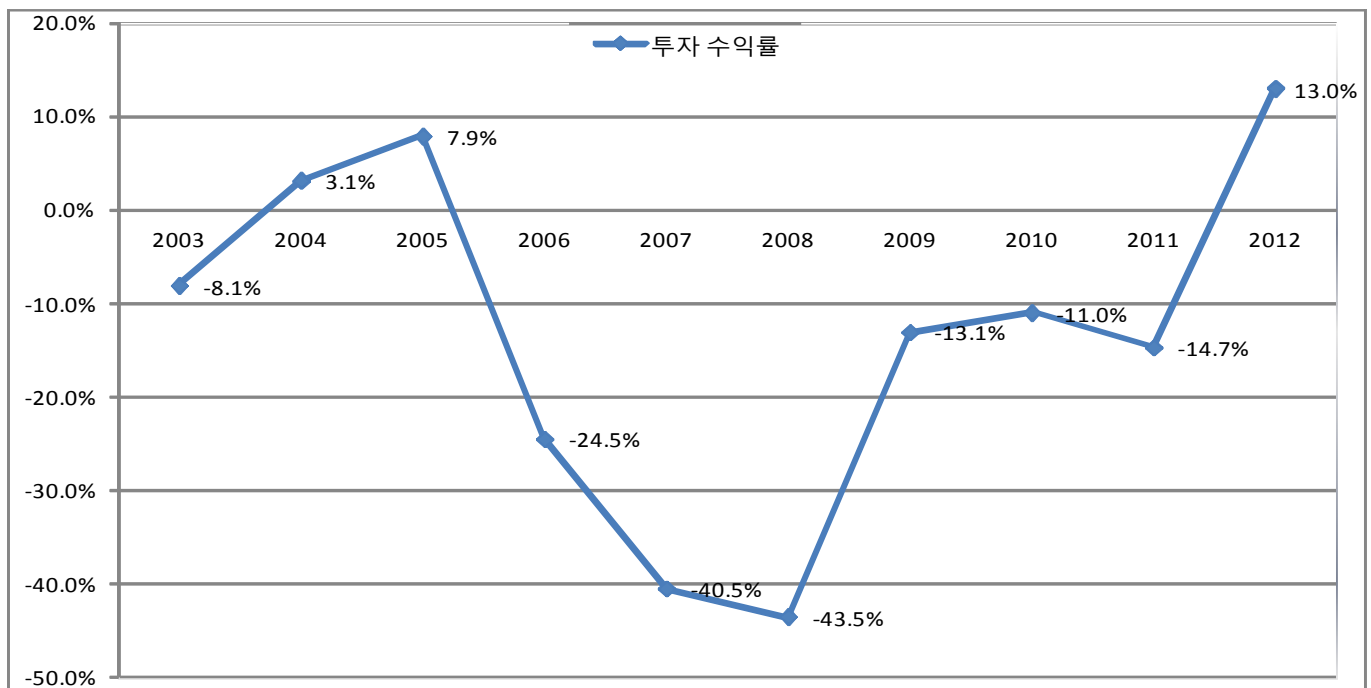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 추이

18) 2011년 개봉작 중 전체 총비용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이상치 작품 1편을 제외한 투자수익률은 -8.37%에 해당함

<표 46> 2012년 한국영화 개봉작 투자 수익률(추정치)

구분		한국영화 개봉작 <sup>19)</sup>	비고
수익성 분석 대상 작품 편수		70편	
평균 총제작비(A)	평균 순제작비	30.4억원	
	평균 마케팅비	16.4억원	
	합계	46.8억원	
평균 총매출액(B)		52.9억원	
평균 수익액(C= B-A)		6.1억원	
평균 수익률		13.0%	
손익분기점(BEP) 상회 편수		22편	
손익분기점(BEP) 상회 비율		34.1%	
수익률 50% 상회 편수		14편	수익률 100% 상회 편수 포함
수익률 50% 상회 비율		20.0%	수익률 100% 상회 비율 포함
수익률 100% 상회 편수		12편	
수익률 100% 상회 비율		17.1%	

19) 2012년에 극장 개봉한 한국영화 174편 중 총제작비 10억원 미만이고,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미만인 작품 104편을 제외한 70편에 한함

## 9. 2012년 한국영화 수출 실적 분석<sup>20)</sup>

한국영화에 있어 2012년은 국내에서 최고의 호황을 기록한 한 해였기도 했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했던 한 해였다. 한국영화 해외 수출 총액은 전년대비 8.4% 상승한 37,824,804 달러(한화 약 41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완성작 수출 부문

2012년 완성작의 해외 수출 총액은 전년대비 27.5% 상승한 20,174,950 달러(한화 약 221억원)으로 집계되어, 2008년 이후 4년 만에 2천만 달러선을 회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현지 직접 배급을 통한 성과가 두드러졌다. 수출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한국영화 수출 관계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올해의 성과가 긍정적인 점은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좌우된 결과라기보다 현지 극장 배급 진출 등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이룩된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3년 간 한국영화 수출액은 1천만 달러 선에 머물며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승하기 시작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천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완성작 수출액 가운데 단건으로 계약된 수출액은 14,170,390달러로 집계됐고, 업체의 현지 직배부문 강화로 기관매된 작품의 추가수익(overage)은 6,004,560달러로 2011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 총액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한국영화 수출부문 추가수익 금액의 상승 요인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수출된 작품이 현지에서 일정 정도의 흥행성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다. 현지에서의 흥행 호조는 해외 수입업자들에게 있어 향후 한국영화의 매력을 더 상승시켜주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업체의 해외직배수익이 본격적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CJ CGV 및 롯데시네마 등의 업체가 극장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한국영화의 배급을 진행하면서 개봉에 의미를 두는 수준을 넘어 현지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표 47> 연도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 추이 (단위 : USD)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외매출 총액	75,994,580	24,514,728	24,396,215	21,036,540	14,122,143	13,582,850	15,828,662	20,174,950
계약금액 (MG+ Flat+ 기타)	75,994,580	24,514,728	12,283,339	20,541,212	13,930,262	13,166,280	14,815,146	14,170,390
추가수익 (Overage)	-	-	12,112,876	495,328	191,881	416,570	1,013,516	6,004,560
전년 대비 증감율	30.39%	-67.74%	-0.48%	-13.77%	-32.87%	-3.82%	16.53%	27.46%
수출 편수(편)*	202	208	321	361	251	276	366	331
평균 수출가**	376,211	117,859	38,266	56,901	55,499	47,704	40,479	42,811

\* 수출 편수에는 추가수익(Overage) 발생 작품 수는 포함하지 않음. 30편 이상의 단편영화 패키지 판매 건은 판매계약 1건을 1편으로 계산함.

\*\* 평균 수출가 = 계약금액 / 수출 편수

20) 본 수출 실적은 각 해외 세일즈사의 도움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센터가 자체 집계한 것이며, 계약금 기준이므로 실제 입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2년 수출 계약이 된 한국영화 편수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331편이었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한국영화의 평균 수출가는 42,811달러로 2011년의 40,479달러보다 5.8% 상승했다. 최근 3년간 한국영화의 평균 수출가를 살펴보면 개별 작품의 규모나 상품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영화의 판매가가 편당 4만 달러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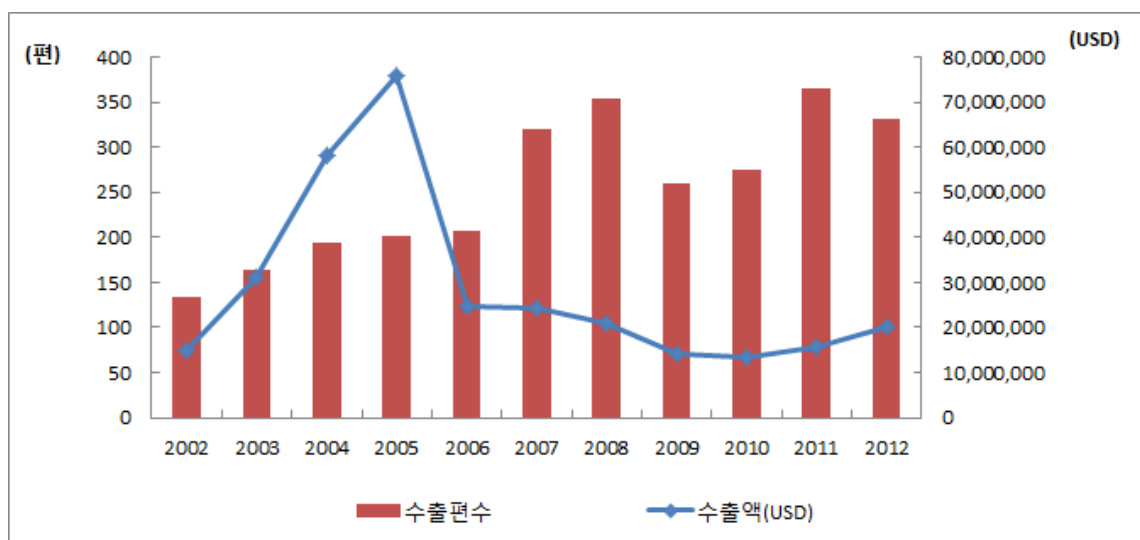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 편수 · 수출액 추이

한국영화의 권역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수출 비중이 2011년 56.9%에서 71.6%로 14.7%p 증가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수출액으로는 2011년 9,012,061달러에서 14,439,757달러로 5,427,696달러 (60.2%)증가했다.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은 매년 높았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한층 더 높아졌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도둑들>, <자칼이 온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의 수출 성과가 좋았다.

<표 48> 2011~2012 권역별 수출실적

권역	수출액(USD)				전년대비 증감율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아시아	9,012,061	56.9%	14,439,757	71.6%	60.2%
북미	1,672,677	10.6%	2,872,752	14.2%	71.7%
유럽	3,522,333	22.3%	2,455,745	12.2%	-30.3%
중남미	147,000	0.9%	233,500	1.2%	58.8%
오세아니아	309,891	2.0%	134,196	0.7%	-56.7%
중동	132,000	0.8%	39,000	0.2%	-70.5%
아프리카	53,000	0.3%	-	-	-100.0%
기타	979,700	6.2%	-	-	-100.0%
합계	15,828,662	100.00%	20,174,950	100.00%	27.5%

아시아의 뒤로 북미, 유럽 지역의 수출액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미지역의 수출액이 상승한데 반해

유럽지역의 수출액이 하락하면서 두 권역이 서로 자리바꿈을 했다. 북미지역의 경우는 극장 직배 수익이 크게 늘어난 점이 수출액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럽지역은 유럽 구매자 전반의 자금 위축과 더불어 유럽에서 소구할 만한 ‘작가주의’ 감독들의 작품이 많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유럽지역에는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 <피에타>, 블록버스터 <타워>,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인류멸망보고서>등이 주로 판매되었다.

중남미 지역의 수출액은 233,500달러로 58.8% 증가했는데, <피에타>를 비롯한 김기덕 감독의 작품, 나홍진 감독의 <황해>, 이재한 감독의 <포화속으로>등 개성이 뚜렷한 작가주의 작품과 장르영화가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았고, 구매로 이어졌다. 한편 중동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수출실적은 미미했다.

주요 10개국의 한국영화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한국영화 최대 소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수출액과 그 비중 또한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은 9,679,008달러로, 2011년 대비 164.2%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23.1%에서 48.0%로 증가했다. <내 아내의 모든 것>, <건축학개론>, <범죄와의 전쟁> 등 일본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은 한국 내 히트작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이 일본에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에 지사를 둔 CJ E&M의 직배 수입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표 49〉 2011~2012년도 주요 10개국 한국영화 수출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연간 수출액 증감율
	수출액 (USD)	비중	수출액 (USD)	비중	
일 본	3,663,437	23.1%	9,679,008	48.0%	164.2%
미 국	1,652,594	10.4%	2,341,685	11.6%	41.7%
홍 콩	623,950	3.9%	1,175,300	5.8%	88.4%
중 국	1,004,000	6.3%	832,700	4.1%	-17.1%
프랑스	940,980	5.9%	730,809	3.6%	-22.3%
싱가포르	799,600	5.1%	581,908	2.9%	-27.2%
태 국	715,000	4.5%	500,000	2.5%	-30.1%
대 만	931,000	5.9%	407,794	2.0%	-56.2%
영 국	780,000	4.9%	331,892	1.7%	-57.5%
독 일	1,490,930	9.4%	326,773	1.6%	-78.1%
기 타	3,227,171	20.4%	3,267,081	16.2%	1.2%
합 계	15,828,662	100.0%	20,174,950	100.00%	27.5%

미국 지역 수출액은 2011년 대비 41.7% 상승한 2,341,68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부가시장을 중심으로 한 판매 호조와 더불어 CJ CGV의 한국영화 직접배급 수익이 합쳐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홍콩으로의 수출도 <타워>, <도둑들>, <I AM>등의 작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2011년 대비 88.4% 성장한 1,175,300달러를 기록했다.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해온 대중국 수출액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대 중국 수출액은 832,700달러로, 2011년 대비 17.1% 감소했다. 이는 인터넷 판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 라이브러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다 극장 상영이 가능한 외국영화에 제한이 있는 중국의 상황에 기반한 현지 구매자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국영화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완성작 수출액 정체는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미국, 홍콩 지역 수출액이 증가한데 반해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및 유럽 주요 국가로의 한국영화 수출액은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2011~2012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판권 유형 비교

계약 판권 종류	2011년		2012년	
	금 액(USD)	비 중	금 액(USD)	비 중
전판권(All Rights)*	12,148,865	76.8%	11,910,501	59.0%
부가 판권**	2,958,497	18.7%	1,204,825	6.0%
리메이크	644,250	4.1%	1,010,000	5.0%
극장 개봉 판권	67,051	0.4%	294,839	1.5%
기 타***	10,000	0.1%	5,754,785	28.5%
합 계	15,828,662	100.0%	20,174,950	100.0%

\* 전판권(All Rights) 계약 중 일부 별도 조건부 계약건도 함께 포함하였음.

\*\* 부가판권은 비디오, DVD/Blu-Ray, VOD, 인터넷, PPV, 기내판권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였음.

\*\*\* 기타부문은 해외직배수익, 공공목적 판권 판매수익 등을 포함함.

한국영화 완성작의 수출 내역을 판권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극장 개봉, 부가판권을 모두 포함한 전판권(All Rights) 계약의 금액 비중이 59.0%로 가장 높았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2011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비중은 76.8%에서 17.8%p 줄었다.

반면 해외직배수익을 포함한 기타 부문이 크게 늘어났다. 기타부문으로 집계된 5,754,785달러에는 공공목적 판매 수익 외에 현지 극장에서 한국영화를 직접 배급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해외 극장 사업 진출을 필두로 한국영화의 해외 수익 창출 창구가 다변화되고,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극장 업체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의 수익이 향후 한국영화 수출에 큰 부분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2012년 수출 부문의 상승세는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설국열차>, <미스터 고 3D>등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고 있는 한편, 홍상수, 이창동 감독 등 아트하우스 계열의 감독들이 신작이 개봉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들 또한 2013년 신작 라인업에 있어 업계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현지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극장 직배부문의 수익도 2013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 수출 부문

2012년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 부문의 실적 조사는 총 6개 분야 (VFX·DI/ 3D·3D컨버팅/ 특수효과·특수분장/ 무술·스턴트/ 사운드믹싱/ 외국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전체 약 74개 업체 중, 2012년도에 해외 수주 실적이 있는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시 국내에서 집행한 제작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역영상위원회도 조사에 포함했다. 수주 실적이 예상되거나 금액을 밝히지 않은 업체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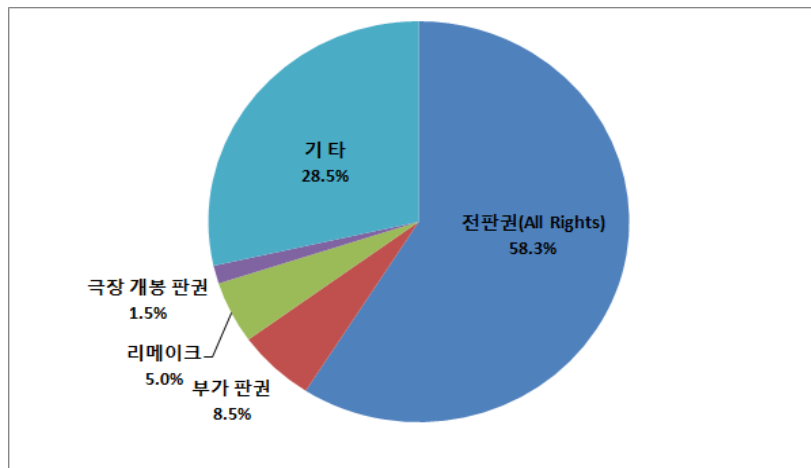


그림 15 2012년 한국 영화 완성작 수출 계약 세부 유형 분포

<표 51> 2010년~2012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 현황 비교 (단위:USD)

서비스 분야	2010년		2011년		2012년	
	수주금액	비중	수주금액	비중	수주금액	비중
VFX·DI	4,400,750	15.4%	10,125,071	53.2%	6,763,300	38.3%
3D·3D컨버팅	21,750,000	75.9%	664,300	3.5%	5,460,000	30.9%
특수효과·특수분장	1,877,756	6.6%	624,880	3.3%	153,660	0.9%
무술·스턴트	522,000	1.8%	261,703	1.4%	71,910	0.4%
사운드믹싱	87,000	0.3%	145,891	0.8%	51,700	0.3%
외국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	-	7,219,318	37.9%	5,149,284	29.2%
합 계	28,637,506	100.0%	19,041,163	100.0%	17,649,854	100.0%

\* 외국영상물이 한국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할 경우, 국내에서 집행한 금액임.

2012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수주금액은 총 17,649,854 달러이며, 54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전체 수주금액으로만 본다면 2011년에 비해 7.3%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VFX·DI가 38.3%, 3D·3D컨버팅이 30.9%로 전체 매출액의 69.2%를 차지했다. VFX·DI 부문 수주금액은 2010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2011년 대비 33.2% 감소하였다. 3D·3D컨버팅은 2010년 당시 3D 시장의 활성화로 서비스 분야 수출 실적의 7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 97% 가량 대폭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721% 증가한 5,460,000달러의 수주에 성공했다.

특수효과·특수분장/ 무술·스턴트/ 사운드믹싱 부문의 수주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영화, 광고, 드라마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들이 국내 작업 물량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외국영상물 국내 로케

이전 부문은 첫 조사가 실시된 2011년에 비해 28.7%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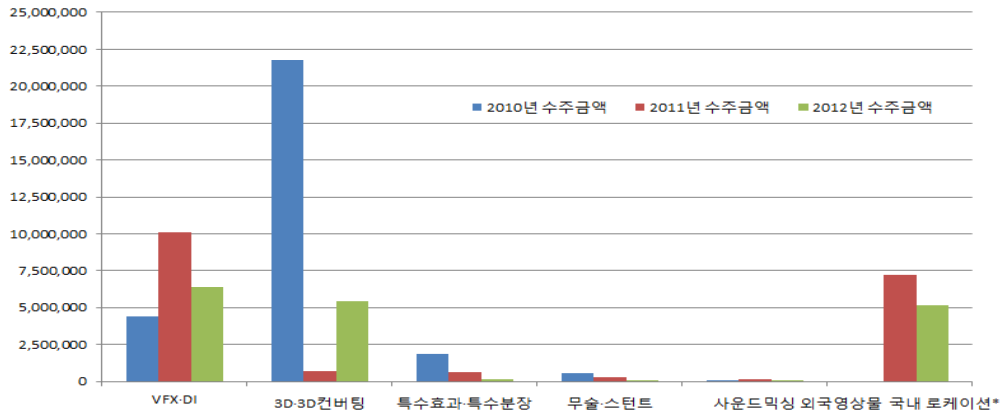


그림 16 2010~2012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 현황 (단위: USD)

<표 52> 2011, 2012년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태프 국가별 수주 현황 (단위: USD)

권역	국가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
		수주금액(USD)	비중	수주금액(USD)	비중	
아시아	중국	4,241,572	35.9%	3,642,180	29.1%	-14.1%
	홍콩	4,850,938	41.0%	2,190,000	17.5%	-54.9%
	일본	2,016,938	17.1%	28,575	0.2%	-98.6%
	대만	-	-	123,490	1.0%	100.0%
	말레이시아	6,097	0.1%	-	-	-100.0%
	소계	11,115,545		5,984,245		-46.1%
북미	미국	706,300	6.0%	5,075,325	40.6%	618.6%
오세아니아	호주	-	-	1,441,000	11.5%	100.0%
합계		11,821,845	100.0%	12,500,570	100.0%	5.7%

서비스 분야 수출은 VFX, 3D, 특수효과, 무술·스턴트, 사운드믹싱 부문의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태프 국가별 수주 현황과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집행 유치 금액,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태프 국가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수주 금액은 12,500,570달러로 2011년 대비 5.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618% 성장하여 2012년 전체 수주 매출의 40.6%를 차지하였다. 호주도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여 2012년 전체 수주 매출의 11.5%를 기록하였다.

미국 매출액은 VFX·DI와 3D 컨버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호주의 매출액은 3D 컨버팅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3D 컨버팅의 경우 2011년 국내 업체들의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으나 2012년에는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타이타닉> 등과 같은 작품에 참여하여 기술력

을 인정받아 향후 3D 컨버팅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3,642,180달러로 2011년 대비 14.1% 감소했고, 홍콩은 2,190,000달러로 54.9% 감소했다. 특히, 일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8% 이상 대폭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매출이 2011년에 비해 50%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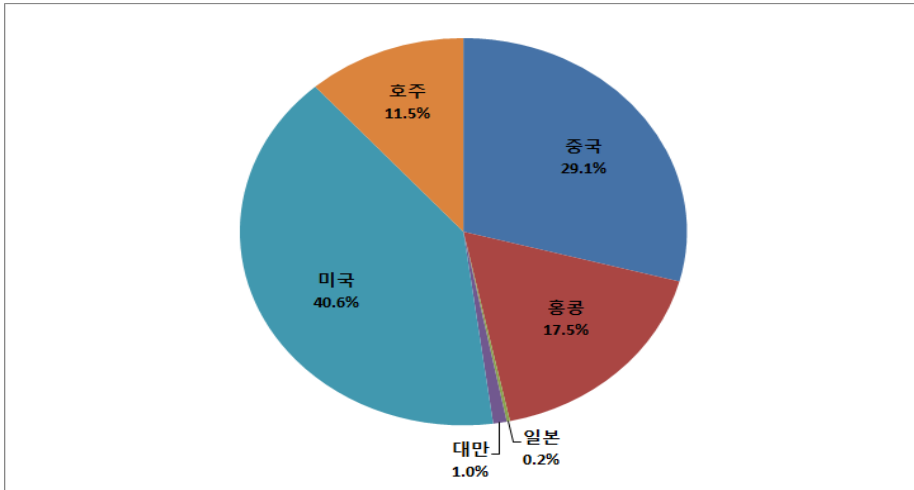


그림 17 2012년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태프 국가별 수주 현황 (단위: USD)

<표 53> 2011, 2012년 외국 영상물 국가별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단위: USD)

권역	지역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
		집행 금액(USD)	비중	집행 금액(USD)	비중	
아시아	일본	5,930,244	82.1%	919,038	17.8%	-84.5%
	중국	1,053,501	14.6%	2,312,865	44.9%	119.5%
	말레이시아	185,472	2.6%	54,998	1.1%	-70.3%
	필리핀	50,101	0.7%	92,979	1.8%	85.6%
	인도네시아	-	-	454,473	8.8%	100.0%
	싱가폴	-	-	110,775	2.2%	100.0%
	소계	7,219,318	100%	3,945,128	76.6%	-45.3%
북미	미국	-	-	1,065,668	20.7%	100.0%
유럽	프랑스	-	-	23,473	0.5%	100.0%
	벨기에	-	-	115,015	2.2%	100.0%
합계		7,219,318	100.0%	5,149,284	100.0%	-28.7%

\*출처: 서울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2011년부터 조사한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유치 실적은 영화제작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 지출 외에도 관광, 현지 고용창출 등의 제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문이다. 2012년 로케이션부문 집행 금액은 5,149,284달러로 2011년에 비해 약 28.7% 감소하였다.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텝 국가별 수주

현황에서 살펴본 바대로 2011년 전체 로케이션 실적의 82.1%를 차지했던 일본이 2012년에는 집행금액이 919,038달러에 머물면서 17.8%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에 비해 중국작품 로케이션 실적은 2011년에 비해 119.5% 이상 증가한 2,312,865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로케이션 실적의 44.9%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로케이션 유치 실적은 4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로케이션 유치 실적에서 28.7% 감소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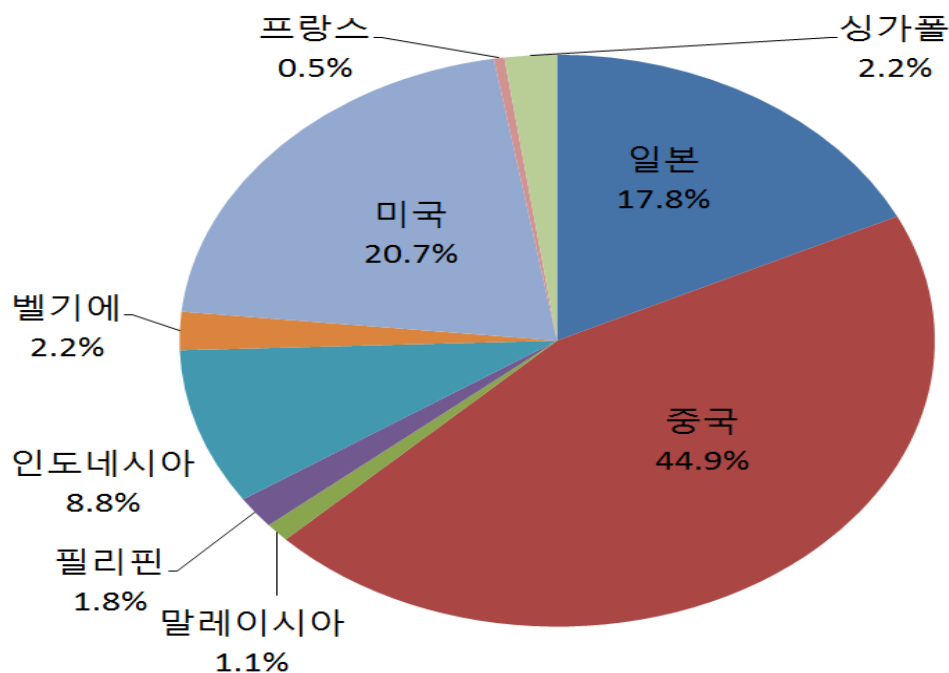


그림 18 2012년 외국 영상물 국가별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단위: USD)

특기할만한 점은 그간 아시아권에 국한되었던 로케이션 유치 국가에 미국과 유럽 국가가 새롭게 등장하여 1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미국 작품 집행 실적은 2012년 1,065,668달러로 전체 실적의 20.7%를 차지하였으며 벨기에와 프랑스 작품의 로케이션 집행금액도 각각 2.2%, 0.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의 실적 조사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 보다 9.3% 감소하였다. 해외 실적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일본 지역 실적이 크게 줄었으며 이를 대신해 미국시장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분야별로는 모두 감소한 가운데 3D·3D컨버팅 부문이 2011년 대비 800%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 Ⅲ. 결론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는 끝났다.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있는 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드디어 통과했다.

2012년은 최다 관객수, 최대 매출액, 최대 수익률의 기록을 세운 한 해였다. 대작과 중작, 그리고 화제작도 많았으며, 다양한 장르 영화가 기획되어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인 <도둑들>, 사극인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200만 관객을 돌파하였고, <늑대소년>과 같은 판타지 멜로드라마가 706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내 아내의 모든 것>, <댄싱퀸>, <건축학 개론> 등의 영화들도 기획력의 힘을 보여주며 400만 이상 관객을 모았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부러진 화살> 등의 영화들은 사회적 문제들을 영화로 풀어내는 화제작들이었다. 여기에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었다. <어벤저스>, <다크 나이트 라이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들은 안정적인 흥행 스코어를 기록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관객이 늘었고 매출액도 더불어 늘어났다. 디지털온라인시장의 규모 또한 2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한국영화 수익률 역시 13%라는 경이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2006년 정점을 기록한 한국영화산업의 호황세는 2007년과 2008년을 거치면서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한국영화의 흥행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투자수익률은 -40%대까지 떨어졌으며, 그로 인한 투자경색은 제작위축과 산업인력 이탈이라는 부정적 연쇄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영화계는 그 부정적 연쇄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수익률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시나리오를 고쳐 쓰고, 기획서를 다듬고,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영화산업 내부의 희생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영화현장에서 힘들게 작업 해온 스태프들과 창작의 과정 속에서 희생된 최고은 작가 등 많은 창작자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영화계는 스태프들과 창작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해온 산업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영화산업의 위기는 많은 중소기업체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대기업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수익분배구조를 개선해서 한국영화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체를 키워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창작자 및 스태프가 공존하는 영화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 한국 영화산업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2012년도의 이월작인 <타워>, 2013년 1월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수건달> 등이 2013년도 한국영화의 흥행 스타트를 끊었다. 2013년 한국영화 라인업은 류승완 감독의 <베를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강우석 감독의 <전설의 주먹>,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 김성수 감독의 <감기> 등 대작들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은밀하게 위대하게>, <관상>, <화이>, <조선미녀삼총사>, <배우는 배우다>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2013년의 한국영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 부록

<표 54> 2012년 한국영화 개봉일람

순 번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 일	스크 린수	2012년전국 매출액 (전년도매출액 포함총매출액)	2012년전국 관객수 (전년도관객 포함총관객)
이월 1	무산일기	박정범	세컨드윈드 필름	(주)영화사 진진	2011-04-14	7	324,500	40
이월 2	소중한 날의 꿈	안재훈, 한혜진	(주)연필로명상하기	에이원엔터테인먼트	2011-06-23	128	3,902,000	1,009
이월 3	플레이	남다정	시네마달,(주)잉크스 팟	(주)영화사 진진	2011-06-23	33	113,000	14
이월 4	마당을 나온 암탉	오성윤	(주)오돌또기 ,(주)명필름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1-07-28	345	1,679,500	449
이월 5	북촌방향	홍상수	(주)영화제작전원사	(주)영화제작전원사	2011-09-08	24	4,570,000	594
이월 6	완득이	이한	어나더무비스(주),(주) 유비유필름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1-10-20	500	4,342,000	582
이월 7	돼지의 왕	연상호	스튜디오 다다쇼,돼지의 왕 제작위원회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컴퍼니에스에스(주)	2011-11-03	22	5,258,000	737
이월 8	티끌모아 로맨스	김정환	(주)아이에이치큐,㈜ 인디스토리	필라멘트픽처스	2011-11-10	294	652,000	87
이월 9	고양이 춤	윤기형	고양이구름 필름	㈜인디스토리	2011-11-17	24	4,814,500	639
이월 10	량강도 아이들	김성훈, 정성산	(주)영화사샘	(주)영화사샘	2011-11-17	34	4,404,000	579
이월 11	나의 선택-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김상철	파이오니아21	케이비에스미디어(주) ,(주)마운틴픽처스	2011-11-17	14	1,598,000	383
이월 12	사물의 비밀	이영미	필름프론트	에지립엔터테인먼트	2011-11-17	29	120,000	24
이월 13	REC 알이씨	소준문	핑크로봇 필름	(주)영화사 진진	2011-11-24	7	721,200	98
이월 14	보라	이강현		시네마달	2011-11-24	5	201,000	29
이월 15	오작한 연애	황인호	상상필름(주)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1-12-01	469	1,721,163,500	231,358
이월 16	하얀 정글	송윤희	제유필름	(주)영화사 진진	2011-12-01	15	1,379,000	213
이월 17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황철민	씨네굿,(주)두엔테테 인먼트	씨네굿	2011-12-01	4	670,000	117
이월 18	창피해	김수현	엔알리스 엔터테인먼트	(주)마운틴픽처스	2011-12-08	12	1,083,000	156
이월 19	오래된 인력거	이성규	트럼프미디어,(주)시 공테크	(주)키노아이 디엠씨	2011-12-15	8	13,659,000	2,171
이월 20	악인은 너무 많다	김희근	하이엔드픽처스	어뮤즈	2011-12-15	7	100,000	20
이월 21	퍼펙트 게임	박희곤	(주)동아수출공사,밀 리언 스토리,(주)다세포클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1-12-21	413	5,224,000,500	695,312

			립					
이월 22	마이 웨이	강제규	(주)디렉터스	에스케이플래닛(주),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1- 12-21	645	4,180,964,000	556,580
이월 23	Jam Docu 강정	경순,권 효,최진 성,김태 일,양동 규,정운 석,최하 동하,홍 형숙		시네마달,(사)한국독 립영화협회	2011- 12-22	3	3,439,000	523
1	원더풀 라디오	권철인	(주)영화사아이비전,( 주)대명컬처테인먼트	쇼박스㈜미디어플렉 스	2012- 01-05	474	7,193,596,000	977,470
2	코알라 키트 : 영웅의 탄생	이경호	(주)디지털아트프로덕션, 더 애니메이션 픽처 컴퍼니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 01-12	234	1,434,535,500	205,579
3	밍크코트	신아가, 이상철	애즈필름	(주)인디스토리	2012- 01-12	13	20,356,600	2,731
4	댄싱퀸	이석훈	(주)제이케이필름,씨 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1-18	534	30,129,259,500	4,057,546
5	부러진 화살	정지영	(주)아우라픽처스	(주)넥스트엔터테인 먼트월드(NEW)	2012- 01-18	453	25,878,110,500	3,450,941
6	페이스메이커	김달중	(주)드림캡처,(주)에 이트볼픽처스 ,(주)필통픽처스	(주)시너지하우스 (시너지),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	2012- 01-18	412	3,443,753,000	467,697
7	네버엔딩 스토리	정용주	아일랜드픽처스(주)	(주)화앤답이엔티	2012- 01-18	269	2,106,823,000	283,449
8	점박이:한반도의 공룡3D	한상호	(주)드림씨치C&C,한 국교육방송공사 EBS,울리브스튜디오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1-26	457	9,621,468,000	1,040,636
9	파파	한지승	상상필름(주)	롯데쇼핑(주)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 02-01	414	3,866,065,500	562,156
10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윤종빈	(주)팔레트픽처스,쇼 박스㈜미디어플렉스	쇼박스(주)미디어플렉 스	2012- 02-02	699	36,479,147,500	4,710,454
11	두 개의 선	지민	반이다,스튜디오 오후출근	시네마달	2012- 02-09	6	14,931,800	2,259
12	하울링	유하	오피스픽처스(유)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2-16	550	11,765,293,500	1,612,554
13	더 데이	백창주	(주)씨제스엔터테인 먼트	롯데쇼핑(주)롯데시네 마	2012- 02-23	30	192,005,000	24,163
14	볼츠와블립	피터 레페니오 티스	(주)레드로버,툰박스 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2-23	61	161,329,000	15,386
15	천사의 숨소리	한지원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2012- 02-23	4	13,842,000	1,873
16	러브픽션	전계수	(주)삼거리픽처스 ,(주)판타지오	(주)넥스트엔터테인 먼트월드(NEW)	2012- 02-29	617	13,200,412,500	1,726,202
17	비스트앵콜콘서트 3D	손석	(주)에스비에스콘텐 츠허브	(주)에스비에스콘텐 츠허브	2012- 02-29	75	171,432,000	16,844
18	만화방	허재형	(주)영진크리에이티	(주)영진크리에이티	2012-	0	0	0

			브	브	02-29			
19	줄탁동시	김경묵	얼라이브픽처스,경픽 쳐스	(주)인디스토리	2012- 03-01	16	19,403,100	2,692
20	열여덟, 열아홉	배광수	영화사 도로시(주)	(주)키노아이 디엠씨	2012- 03-01	17	8,585,000	1,249
21	화차	변영주	(주)영화제작소보임	필라멘트픽쳐스	2012- 03-08	548	18,450,760,000	2,435,211
22	말하는 건축가	정재은	(주)두타연	(주)두타연,(주)미디 어테이	2012- 03-08	20	301,773,700	38,653
23	로맨스 조	이광국	(주)보리픽쳐스	씨네21아이(주)	2012- 03-08	19	25,937,600	3,402
24	밀월도 가는 길	양정호	한국영화아카데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3-08	1	10,970,500	1,380
25	가시	김중현	한국영화아카데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3-08	1	1,696,500	216
26	태어나서 미안해	최영석	한국영화아카데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3-08	1	1,631,500	201
27	은실이	김선아, 박세희	한국영화아카데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3-08	1	1,089,000	138
28	가비	장윤현	(주)오션필름	(주)시네마서비스	2012- 03-15	339	1,969,360,500	270,602
29	청춘그루브	변성현	(주)다세포클립	(주)두타연,(주)미디 어테이	2012- 03-15	5	6,922,500	864
30	핑크	전수일	(주)동넉필름,(주)마 운틴픽쳐스	(주)마운틴픽쳐스	2012- 03-15	11	4,732,000	730
31	홈 스위트 홈	문시현		이미지팩토리	2012- 03-15	5	2,109,500	297
32	킬링 타임	박성수	(주)테이드림서울,(주) )팔라우픽쳐스	(주)테이드림서울	2012- 03-15	1	1,208,000	155
33	야색야동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 03-15	1	10,000	5
34	건축학개론	이용주	(주)명필름	롯데쇼핑(주)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 03-22	593	30,219,800,500	4,110,645
35	달팽이의 별	이승준	크리에이티브 이스트	(주)영화사조아	2012- 03-22	34	132,937,800	19,252
36	해로 (偕老)	최종태	(주)고유에프엔,(주) 더쥬픽쳐스	(주)키노아이 디엠씨	2012- 03-22	24	28,013,200	5,851
37	시체가 돌아왔다	우선호	씨네2000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3-29	435	7,357,623,000	986,547
38	혜원아, 사랑해	김기현	양전프로덕션	양전프로덕션	2012- 03-29	4	962,000	164
39	어머니	태준식	어머니 제작위원회	(주)인디스토리	2012- 04-05	19	25,321,400	3,730
40	간기남	김형준	(주)트로피엔터테인먼트, (주)더드림엔드픽 쳐스	쇼박스(주)미디어플렉 스	2012- 04-11	356	9,356,404,500	1,246,185
41	인류멸망 보고서	김지운, 임필성	지오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엔터 테인먼트,타임스토리 그룹(주)	2012- 04-11	236	702,418,000	97,555
42	시간의 숲	송일곤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4-19	5	12,000,000	1,556
43	듀엣	이상빈	(주)스테이지팩토리	(주)영화사 조제	2012- 04-19	10	7,995,000	1,081

44	은교	정지우	정지우 필름, ㈜렛츠필름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 04-25	521	9,917,728,000	1,346,274
45	봄, 눈	김태균	관씨네마㈜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2012- 04-26	118	143,518,000	22,870
46	레드마리아	경순	독립프로덕션빨간눈 사람	(주)시네마달	2012- 04-26	14	12,677,400	1,773
47	아버지는 개다	이상우	이상우 필름	이상우 필름	2012- 04-26	1	969,000	144
48	트로피컬 마닐라	이상우	이상우 필름	이상우 필름	2012- 04-26	1	565,000	86
49	48시간의 일탈	이승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 04-28	1	350,050	75
50	코리아	문현성	(주)더타워픽처스, 씨 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주)웹메이 드스타엠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5-03	537	13,334,762,500	1,857,392
51	저스트 프렌즈	안철호	(주)맑음영화사	팝엔터테인먼트	2012- 05-03	6	4,097,000	572
52	두레소리	조정래	제이오엔터테인먼트	(주)명필름	2012- 05-10	132	115,794,000	17,362
53	이방인들	최용석	필름문	(주)판다미디어	2012- 05-10	4	2,025,000	363
54	내 아내의 모든 것	민규동	(주)수필름, 영화사 집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2012- 05-17	563	34,222,160,500	4,598,583
55	돈의 맛	임상수	웹브빠말주식회사	(주)시너지하우스 (시너지),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2012- 05-17	643	8,776,870,611	1,165,488
56	할머니는 일학년	진광교	(주)아피아스튜디오	(주)나이너스엔터테 인먼트	2012- 05-24	33	39,607,500	6,287
57	안녕, 하세요!	임태형	테디웍스, (주)펜타이 엔씨 서울시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 05-24	18	30,829,500	4,946
58	천국의 아이들	박홍식	교육청, (주)인벤트스 톤, (주)노마드필름	(주)미로비전	2012- 05-24	7	19,220,000	3,432
59	U.F.O.	공귀현	스파이럴 프로젝트	(주)인디스토리	2012- 05-24	11	6,765,000	943
60	그리움의 종착역	조성형	(주)에스와이코마드	(주)에스와이코마드	2012- 05-24	1	1,080,000	160
61	차형사	신태라	(주)영화사홍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 05-30	433	9,752,555,296	1,346,754
62	미확인 동영상 : 절대클릭금지	김태경	(유)에이디사공유, (주) 다세포클럽	쇼박스㈜미디어플렉 스	2012- 05-30	361	5,939,840,500	867,386
63	다른나라에서	홍상수	(주)영화제작전원사	(주)영화제작전원사 , (주)영화사 조제	2012- 05-31	35	237,013,700	30,590
64	엄마에게	이홍재	이홍재 필름	어뮤즈	2012- 05-31	5	3,333,500	570
65	후궁 : 제왕의 첩	김대승	(주)황기성 사단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 06-06	624	19,250,354,500	2,621,436
66	슈퍼스타	임진순	스토리룸	(주)마운틴픽처스	2012- 06-07	18	10,413,400	1,463
67	미쓰GO	박철관	영화사 도로시(주)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2012- 06-21	440	4,441,859,000	611,685
68	아부의 왕	정승구	(주)황금주전자	롯데쇼핑㈜롯데엔터	2012-	428	3,511,102,500	497,880

				테인먼트	06-21			
69	두 개의 문	김일란, 홍지유	연분홍 치마	(주)시네마달	2012-06-21	18	502,427,000	73,204
70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김조광수	청년필름(주),한국계 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영화사 진진	2012-06-21	67	380,102,144	50,905
71	I AM	최진성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주)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06-21	137	245,580,000	32,988
72	설마 그릴리가 없어	조성규	(주)스폰지이엔티	(주)영화사 조제	2012-06-21	6	13,150,400	1,664
73	동학, 수운 최제우	박영철	더 필름클래식 프로덕션	더 필름클래식 프로덕션	2012-06-28	1	1,333,000	228
74	연가시	박정우	(주)오존필름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07-05	759	32,154,766,664	4,513,026
75	두 개의 달	김동빈	(주)고스트픽처스,(주) 주피터필름,롯데쇼 핑㈜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07-12	347	2,944,786,748	425,972
76	나는 공무원이다	구자홍	마포필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2012-07-12	278	1,535,913,500	217,493
77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봉만대	(주)스냅소울,영화사 뜰(주)	(주)스냅소울	2012-07-12	9	6,723,500	993
78	철암 계곡의 혈투	지하진	스피나치엔빈	㈜인디스토리	2012-07-12	10	6,357,500	866
79	모피를 입은 비너스	송예섭	보통영화사	(주)영화사 조제	2012-07-12	1	3,248,000	393
80	5백만불의 사나이	김익로	(주)하리마오피처스,( 주)제이와이피엔터테 인먼트,(주)바른손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07-19	331	739,789,500	104,736
81	우쿨렐레 사랑모임	노효두		어뮤즈	2012-07-19	3	1,546,000	224
82	도둑들	최동훈	(주)케이퍼필름	쇼박스㈜미디어플렉 스	2012-07-25	1,072	93,664,844,500	12,983,182
83	무서운 이야기	정범식, 임대웅, 홍지영, 김곡,김 선	(주)수필름,(주)데이 지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07-25	274	2,452,368,566	331,760
84	파닥파닥	이대희	(주)이대희 애니메이션스튜디오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인디스토 리	2012-07-25	51	87,647,900	13,194
85	미국의 바람과 불	김경만		(주)시네마달	2012-07-26	3	3,107,498	515
86	서태지 8집: 398일의 기록	서태지	(주)서태지컴퍼니	(주)서태지컴퍼니	2012-07-27	1	43,754,500	5,326
87	통통한 혁명	민두식	(주)마운틴픽처스,(주) 맑음영화사	(주)마운틴픽처스	2012-08-02	8	3,748,000	557
88	스팟걸-교수와 여제자	신혜성	비즈니스네트워크	(주)조이엔컨텐츠그 룹	2012-08-02	1	400,000	75
89	AV아이돌	조조 히데오	(주)영화사조아	골든타이드픽처스	2012-08-02	1	10,000	2

9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김주호	(주)두타연,(유)에이 디사공육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2-08-08	694	34,524,377,161	4,897,551
91	나는 왕이로소이다	장규성	(주)데이지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8-08	471	5,317,185,404	768,971
92	황제펑귄 켈리와 숨이	김진만, 김재영	(주)MBC	(주)마운틴픽쳐스	2012-08-08	55	81,590,500	11,418
93	여인의 습격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08-10	1	400,000	75
94	R2B: 리턴투베이스	김동원	(주)주머니필름,(주)빨간마후라,씨제이이엔엔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엔 주식회사	2012-08-15	539	8,600,523,371	1,201,644
95	이웃사람	김휘	영화사 무쇠판,플로우식스(주),자이온이엔티(주),(주)누리픽쳐스,히트박스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8-22	600	18,087,442,369	2,434,099
96	나나나 : 여배우 민낯 프로젝트	부지영, 김꽃비, 서영주, 양은용	서울독립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2012-08-23	7	3,813,400	524
97	90분	박선옥	(주)사람과사람	(주)키노아이 디엠씨	2012-08-23	1	248,000	42
98	공모자들	김홍선	(주)영화사채움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타임스토리그룹(주)	2012-08-29	496	12,240,964,500	1,646,142
99	577 프로젝트	이근우	(주)다세포클럽,(주)무브픽쳐스,(주)판타지오,(주)매니지먼트숲	필라멘트픽쳐스	2012-08-30	191	695,765,500	96,079
100	미운오리새끼	곽경택	(주)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8-30	167	308,009,500	45,454
101	영건 탐정사무소	오영두	키노망고스틴,캉레코드	(주)인디스토리	2012-08-30	17	7,177,000	957
102	피에타	김기덕	김기덕 필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2-09-06	291	4,354,008,500	602,967
103	웨딩스캔들	신동엽	(주)엔브릭스게임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2012-09-06	121	124,977,000	19,569
104	청포도 사탕: 17년 전의 약속	김희정	(주)인벤트스톤	(주)마운틴픽쳐스	2012-09-06	20	11,294,500	1,600
105	광해, 왕이 된 남자	추창민	리얼라이즈픽쳐스(주),씨제이이엔엔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엔 주식회사	2012-09-13	810	88,899,448,769	12,319,390
106	한경직	천정훈	(주)마운틴픽쳐스	(주)마운틴픽쳐스	2012-09-13	7	107,099,500	18,113
107	투 올드 힙합 키드	정대건	다카포필름	(주)시네마달	2012-09-13	12	12,537,000	1,792
108	화이팅 패밀리	김성호, 구상범	피디픽쳐스	골든타이드픽쳐스	2012-09-13	8	7,323,500	1,199
109	사랑을 말하다	전화성	크리에이티브컴즈(주)	크리에이티브컴즈(주)	2012-09-13	2	940,000	188
110	간첩	우민호	(주)영화사울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9-20	576	9,316,548,500	1,310,895
111	깡깡깡 희망버스	이수정	영화제작소 다	(주)마운틴픽쳐스	2012-	7	4,638,400	689

					09-27			
112	점쟁이들	신정원	사람엔터테인먼트,(주)다세포클럽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2-10-03	479	6,345,293,500	900,054
113	회사원	임상윤	영화사심미안(주),쇼박스㈜미디어플렉스,(주)51k	쇼박스㈜미디어플렉스	2012-10-11	549	8,321,175,000	1,110,523
114	에스엠타운 라이브인도쿄스페셜에디션3D	유호진	에스비에스 바이아컴 유한회사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2012-10-11	63	18,130,000	1,652
115	하나안	박루슬란	(주)영화사 자미,플라잉타이거픽처스	(주)인디스토리	2012-10-11	12	6,671,400	917
116	스타: 빛나는 사랑	한상희	(주)잠음영화사	(주)마운틴픽처스	2012-10-11	5	4,382,000	577
117	용의자X	방은진	(주)케이엔엔터테인먼트,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10-18	553	11,241,013,000	1,552,055
118	인피니트 콘서트 세컨드 인베이션 에볼루션 더 무비 3D	손석	케이비에스미디어(주),(주)올림엔터테인먼트	골든타이드픽처스	2012-10-18	84	412,379,000	39,577
119	MB의 추억	김재환	(주)비투이	스튜디오느릅보	2012-10-18	5	112,375,100	14,954
120	위대한 비행	진재운	부산경남대표방송,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2012-10-18	33	47,993,500	8,321
121	맥코리아	김형렬	(주)디케이미디어	(주)마운틴픽처스	2012-10-18	16	25,154,000	3,631
122	미쓰 마마	백연아	프로덕션공방,(주)이든픽처스	찬란	2012-10-18	15	11,040,500	1,504
123	핏볼테리아	고명안	스턴트코리아	스턴트코리아	2012-10-23	1	492,800	77
124	강철대오:구국의 철가방	육상효	스페이스엠(주)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2012-10-25	366	1,614,867,156	233,211
125	비정한 도시 감독관	김문흠	(주)온전한 컴퍼니	(주)인벤트스톤	2012-10-25	172	161,959,057	22,900
126	바비	이상우	(주)인디컴미디어	(주)미로비전	2012-10-25	24	17,233,500	2,340
127	전망 좋은 집	이수성	LEE FILM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2012-10-25	23	10,864,000	1,461
128	부귀영화	인진미	버진필름	(주)마운틴픽처스	2012-10-25	1	1,149,500	158
129	맛있는불륜-택시	이승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0-25	1	515,000	103
130	늑대소년	조성희	(주)영화사비단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10-31	706	46,590,107,000	6,654,390
131	복숭아나무	구혜선	구혜선 필름,(주)조이엔컨텐츠그룹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2-10-31	201	240,103,112	33,884
132	나쁜 피	강효진	(주)키노크러시	(주)팝엔터테인먼트	2012-11-01	12	7,233,500	1,008
133	맛있는 스캔들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	1	400,000	75

					11-02			
134	내가 살인범이다	정병길	(주)다세포클럽,쇼박스 스튜디오플렉스	쇼박스㈜미디어플렉스	2012-11-08	547	20,338,868,000	2,721,893
135	터치	민병훈	민병훈필름	(주)팝엔터테인먼트	2012-11-08	95	100,685,000	17,403
136	리틀 제이콥	유형	데이브인터랙티브	데이브인터랙티브	2012-11-08	9	11,336,000	2,581
137	가족시네마	신수원, 홍지영, 이수연, 김성호	(주)수필름,포디렉터스	골든타이드픽처스	2012-11-08	12	14,632,000	2,031
138	전망 좋은 방-밀애	이승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1-08	1	30,000	10
139	자갈이 온다	배형준	(주)노마드필름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11-15	300	1,430,079,500	210,278
140	내가 고백을 하면	조성규	(주)영화사 조제,(주)스폰지이엔티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2012-11-15	37	87,624,000	11,515
141	백야	이송희일	(주)시네마달	(주)시네마달	2012-11-15	19	32,637,200	4,454
142	지난 여름, 갑자기	이송희일	(주)시네마달	(주)시네마달	2012-11-15	11	10,845,250	2,535
143	남쪽으로 간다	이송희일	(주)시네마달	(주)시네마달	2012-11-15	11	8,229,250	2,232
144	수목장	박광춘	(주)노마드필름	(주)마운틴픽처스	2012-11-15	2	1,406,000	263
145	금지된 섹스 불륜2	이송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1-15	0	30,000	10
146	돈 크라이 마미	김용한	(주)씨네마골뱅이	(주)에스비에스콘텐 츠허브	2012-11-22	444	6,798,895,099	972,964
147	남영동1985	정지영	(주)아우라픽처스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주)옛나인필름	2012-11-22	310	2,358,477,601	332,597
148	철가방 우수氏	윤학렬	(주)대길이에스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11-22	119	601,513,500	91,988
149	개들의 전쟁	조병옥	(주)영화사엠16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11-22	94	171,004,571	23,350
150	범죄소년	강이관	국가인권위원회,(주) 영화사 남원	타임스토리그룹(주)	2012-11-22	56	80,763,800	11,585
151	반드시 크게 들을 것 2 : Wild Days	백승화	(주)인디스토리,러브락 컴퍼니	(주)인디스토리	2012-11-22	16	14,279,800	1,950
152	유신의 추억-다카키 마사오의 전성시대	이정환	엠투픽처스	엠투픽처스	2012-11-22	2	7,137,000	1,043
153	사이에서	어일선, 민두식	(주)씨타도시공간,영 화사 민들레	(주)마운틴픽처스,영 화사 민들레	2012-11-22	6	2,624,500	347
154	맛있는 섹스, 맛있는 상상	이송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1-22	0	30,000	10
155	AV스타납치사건	김춘찬	골든타이드픽처스	골든타이드픽처스	2012-11-22	2	65,000	10
156	26년	조근현	영화사청어람(주)	(주)인벤트스톤,영화 사청어람(주)	2012-11-29	604	21,111,920,145	2,940,480
157	음치클리닉	김진영	(주)전망좋은 영화사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11-29	360	2,248,238,000	338,168



158	노크	이주현	(주)노마드필름	(주)마운틴픽쳐스	2012-11-29	3	1,492,000	203
159	도다리 - 리덕스	박준범	야간비행	야간비행	2012-11-29	2	512,000	125
160	스무살의 이중생활	이승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1-29	0	100,000	10
161	마티나	크리스토퍼 로빈 콜린스	영화사온난전선	(주)엑티브스엔터테인먼트	2012-11-29	1	38,000	7
162	나의PS파트너	변성현	나의PS파트너 문화산업전문회사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12-06	552	13,496,968,616	1,778,224
163	늑대소년-확장판	조성희	(주)영화사비단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12-06	278	2,868,180,500	414,064
164	네모난원	김성훈	영화사 랑	(주)팝엔터테인먼트	2012-12-06	16	44,276,000	6,627
165	영화관	허철	(주)아우라픽쳐스,엔터 터시네마	(주)마운틴픽쳐스	2012-12-06	10	7,251,500	1,031
166	롤플레이	백상열	골든타이드픽쳐스	골든타이드픽쳐스	2012-12-06	6	449,000	70
167	깊은 사랑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2-12	1	120,000	20
168	차이나 블루	김건	(주)CMG초록별,엔에 프통상	프로젝트 엠피	2012-12-13	3	1,460,400	205
169	잔혹한 앵글의 로망스	고락중	영화사히트	Yellow Pictures	2012-12-13	2	59,000	9
170	반창꼬	정기훈	(주)영화사오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2012-12-19	466	12,432,630,719	1,726,467
171	가문의 영광5 - 가문의 귀환	정용기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롯데엔터 테인먼트	2012-12-19	447	7,245,126,500	1,012,232
172	전망 좋은 방-맛있는 섹스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2-19	1	140,000	20
173	몽정애-감독판	이승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2-20	1	140,000	20
174	타워	김지훈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주)더타워 픽쳐스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12-25	617	14,658,477,500	2,014,618
175	전망좋은해변-두여 자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2-26	1	200,000	30